

2013년 한국경제 및 제주경제 전망

- 일 시 : 2012년 12월 27일(목) 16:00~18:00
- 장 소 : 제주발전연구원 1층 중회의실
- 주최·주관 : 제주발전연구원

2013년 한국경제 및 제주경제 전망

□ 세미나 개최 배경 및 목적

-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유럽의 재정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각 경제관련 연구기관들은 2013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둔화 내지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세미나를 통해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2013년 한국경제 및 제주경제 전망을 실시함으로써,
 -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2013년 경제정책 목표 설정 및 경제정책 운용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 개요

- 일 시 : 2012년 12월 27일(목) 16:00~18:00
- 장 소 : 제주발전연구원 1층 중회의실
- 주최·주관 : 제주발전연구원

□ 행사 프로그램

진행 : 이성용 경제환경도시부장

구 분		시 간	담 당
등 록		15:30~16:00	참석자 등록
개회식	개회사	16:00~16:10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
발 표 1		16:10~16:30	2013년 한국경제 전망 -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발 표 2		16:30~16:50	2013년 제주경제 전망 - 고봉현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휴 식		16:50~17:00	Coffee Break
지정토론		17:00~18:00	좌장 - 고성보 제주대학교 교수 토론자 - 한국은행 제주본부 - 제주테크노파크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 농협제주지역본부 - 김의근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 김배성 제주대학교 교수 - 김정숙 제주대학교 교수 - 고태호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정지형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마 무 리		18:00	사회자

□ 발표자 원고 및 토론요지 녹취 후 보고서 발간

목 차

■ 주제발표 1

- 2013년 한국경제 전망

변 양 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5

■ 주제발표 2

- 2013년 제주경제 전망

고 봉 현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51

2013년 한국경제 전망

변 양 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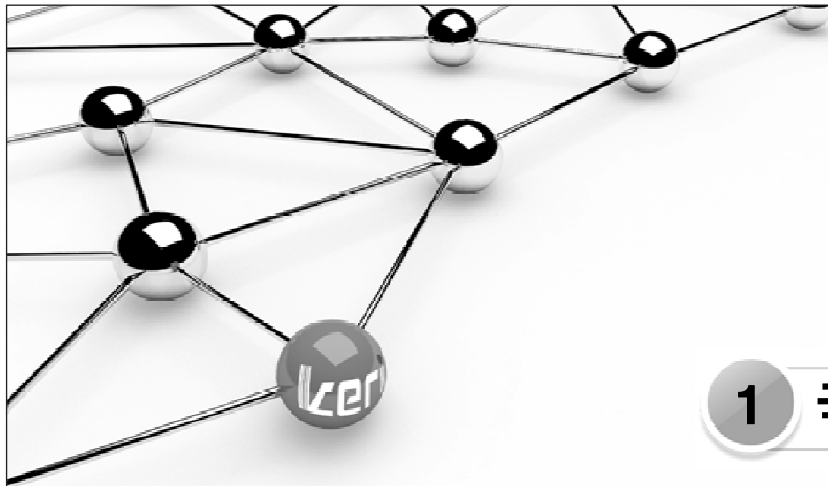


2013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제주발전연구원, 2012.12.27.)

Free Market
Free Enterprise
Free Competition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변양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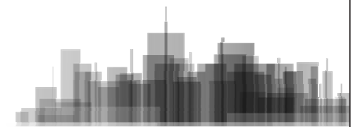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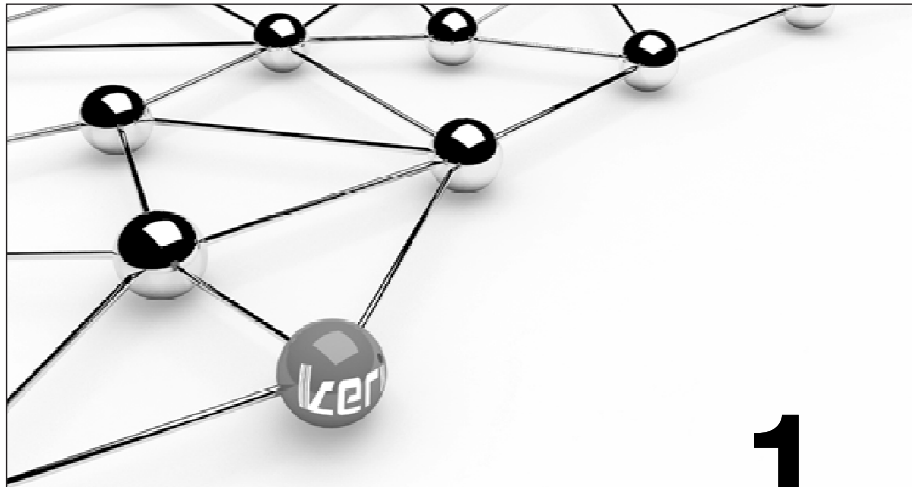
1 국내 경제동향

2 국내 경제전망

3 이슈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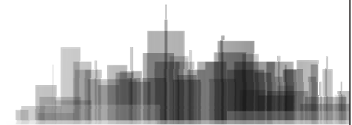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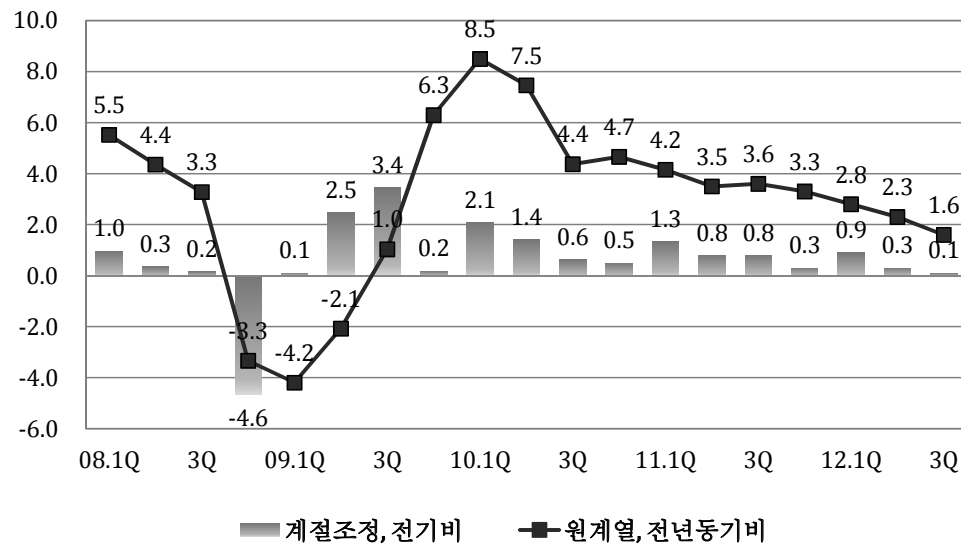
1

국내 경제동향



□ 성장률, 3분기 중 전기비 0.2%, 2분기 대비 0.1%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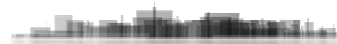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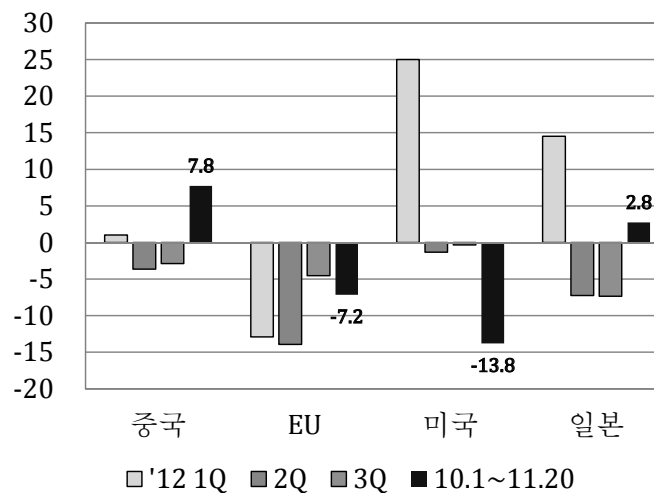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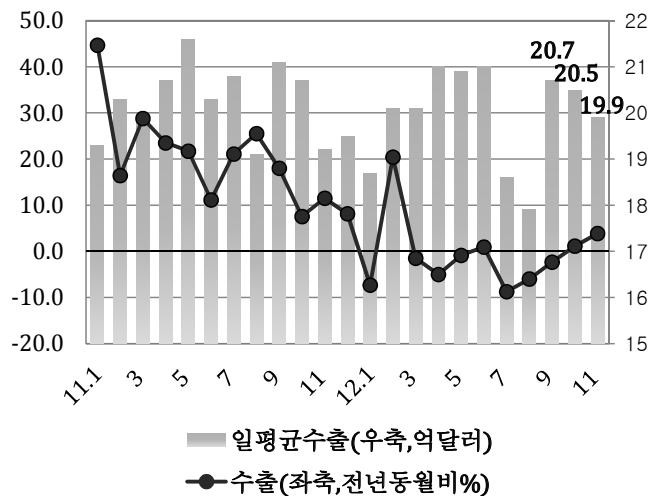
- 2011년 2분기 이후 6분기연속 1%대 미만 기록
 - 전년동기비로는 1.6% 성장, 2009년 3분기(1.0%)이후 최저수준
- 소비, 수출, 건설투자 반등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부진에 기인
 - 설비투자 증가율, 2/4분기 -7.0%에 이어 3/4분기에도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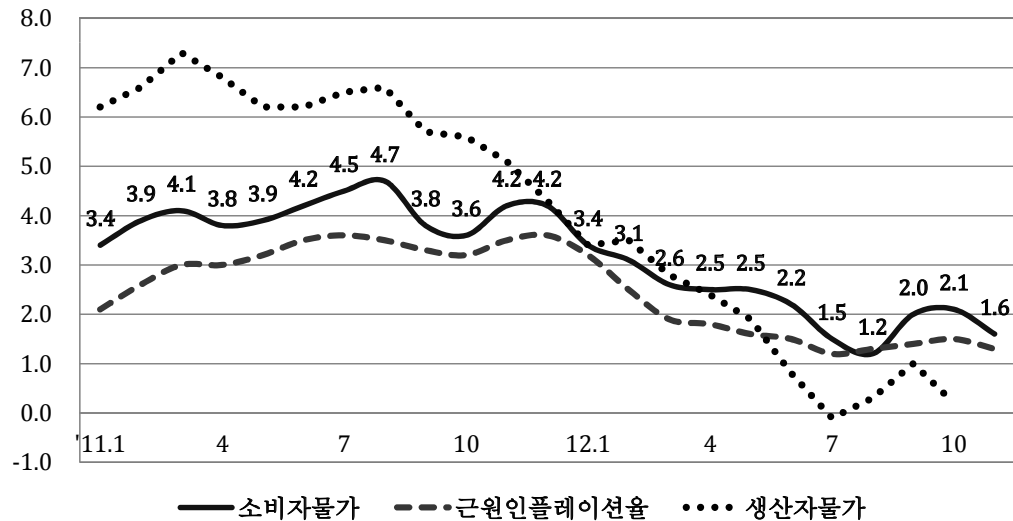
□ 수출, 10, 11월 중 연속 2개월 플러스 증가율을 보였으나 환율 하락으로 증가세 지속은 불투명

- 증가율(전년동기비%): 3.0(1/4) → -1.7(2/4) → -5.7(3/4) → 2.5(10~11월)
- 일평균 수출은 3개월 연속 하락
- 대EU수출의 부진 지속/미국에 대한 수출은 2/4분기 이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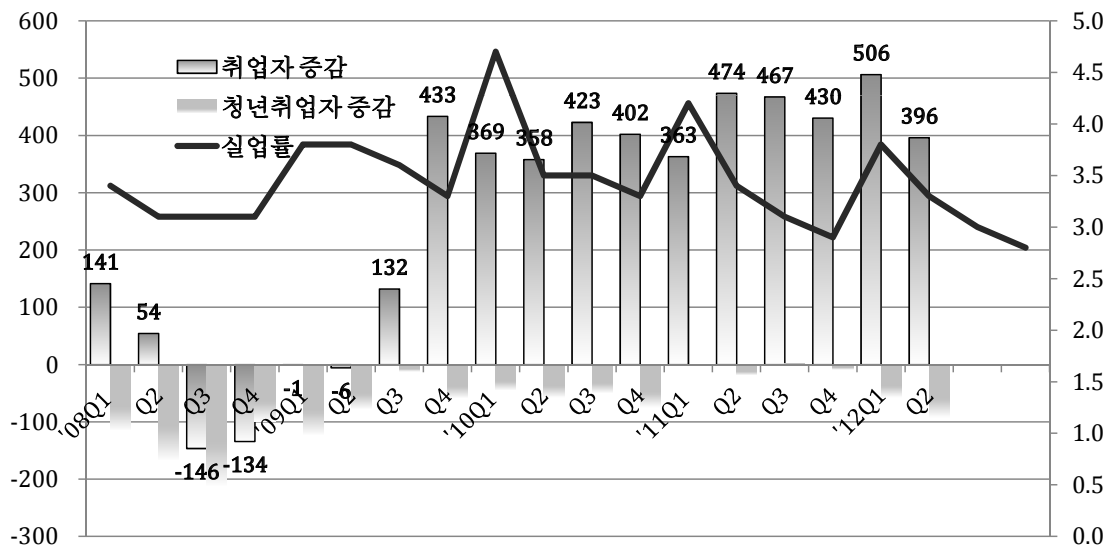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 9월 잠시 반등 이후 다시 안정세 유지

- 소비자물가, 8월을 저점으로 잠시 반등했으나 다시 1%대 증가율
 - 전년동월비 : 1.2%(8월) → 2.0%(9월) → 2.1%(10월) → 1.6%(11월)
 - 전월비: 0.7%(9월) → -0.1%(10월) → -0.4%(11월)
- 기상 악화, 국제유가 불안의 영향으로 빠르게 상승한 농축수산물 가격과 공업제품 가격이 10월 들어 진정된 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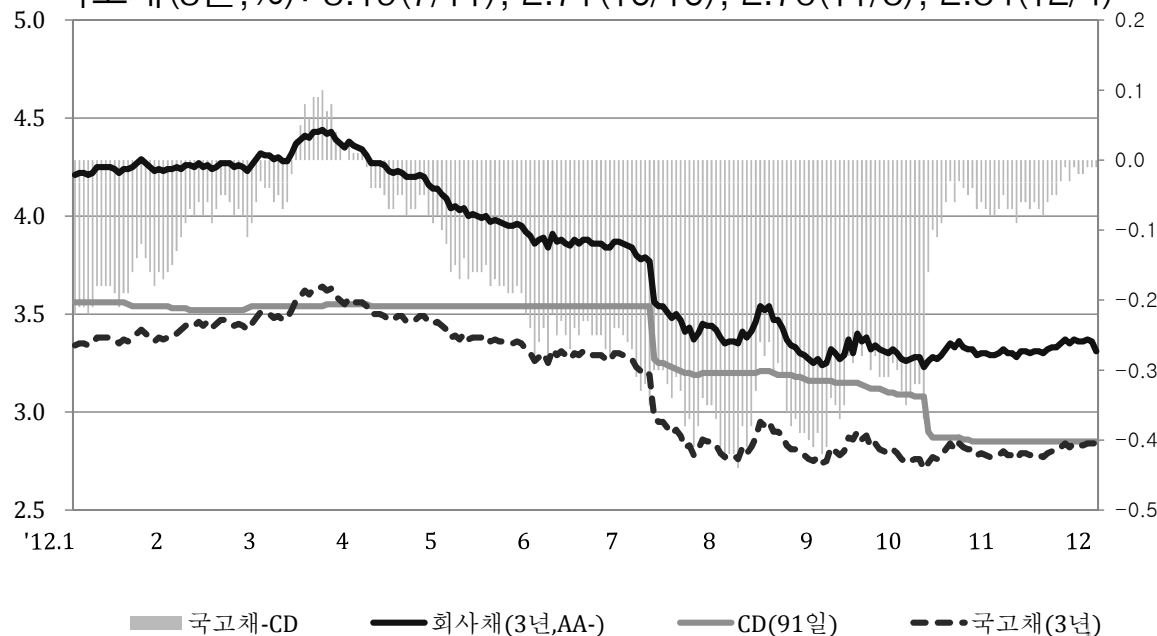
□ 고용, 양적 회복세 유지 했지만 청년층 취업 악화 지속

- 취업자 수, 10월 중 전년동월비 약 40만 명 증가
 - 취업자증감(전년동월비 천명): 467(1/4), 431(2/4), 506(3/4), 396(10월)
-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가 2/4분기 이후 더욱 확대
 - 15~29세 취업자 증감(천명): 1(1/4), -8(2/4), -57(3/4), -92(10월)



□ 시장금리, 기준금리 동결 및 안전자산 선호 약화로 소폭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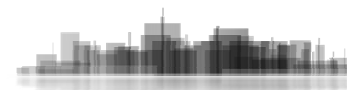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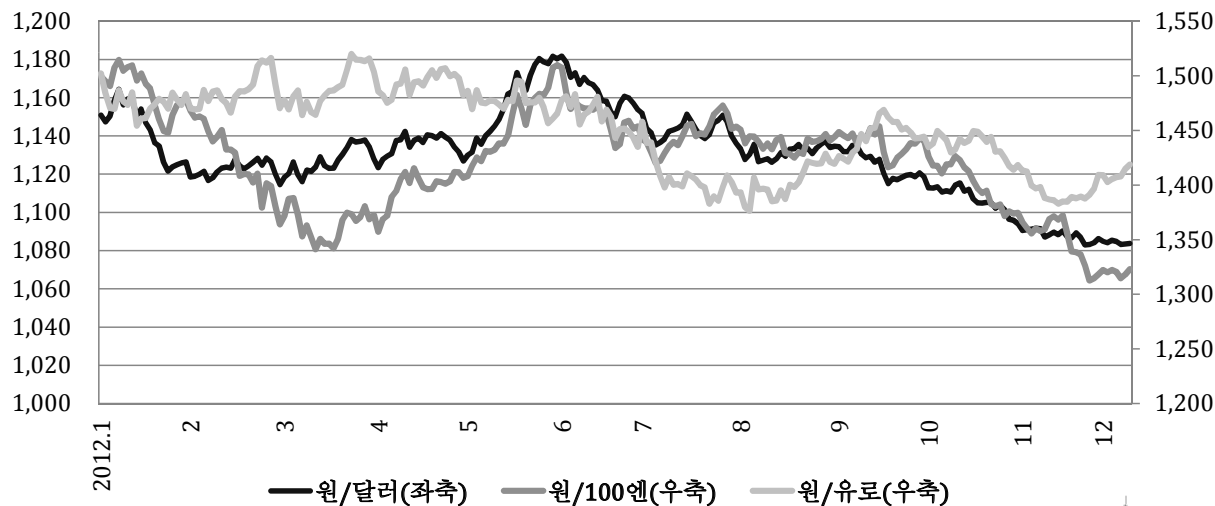
- 회사채 (3년, AA-, %): 3.77(7/11), 3.23(10/10), 3.28(11/8), 3.31(12/4)
- 국고채 (3년, %): 3.19(7/11), 2.71(10/10), 2.76(11/8), 2.84(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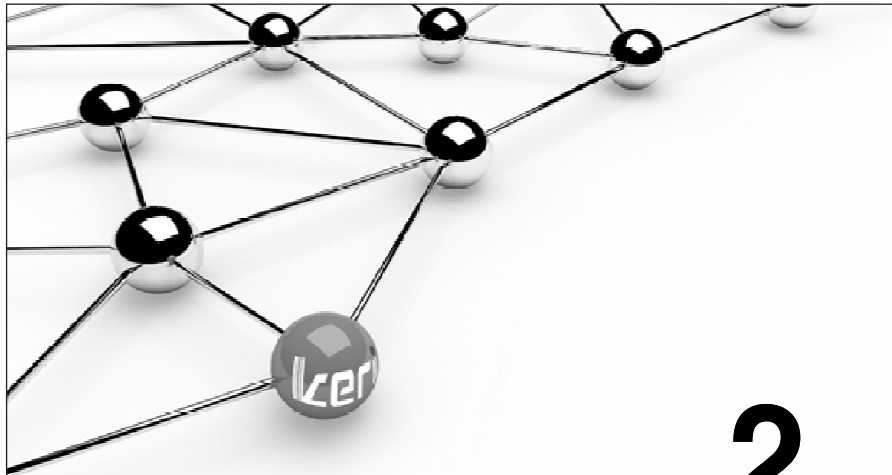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 ECB 및 美 Fed의 무제한 양적 완화 조치 이후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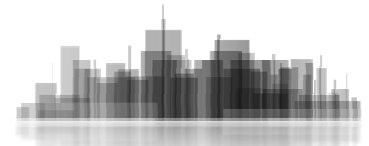
- 6월 초 이후 5개월 새 100원 가까이 하락
 - 1,182(6/5일) → 1,134원(9/3) → 1,112원(10/2) → 1,084원(12/5)
- 최근 원/달러 하락 요인이 우세한데 기인
 - 주요국 양적 완화,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자금유입 증가
 -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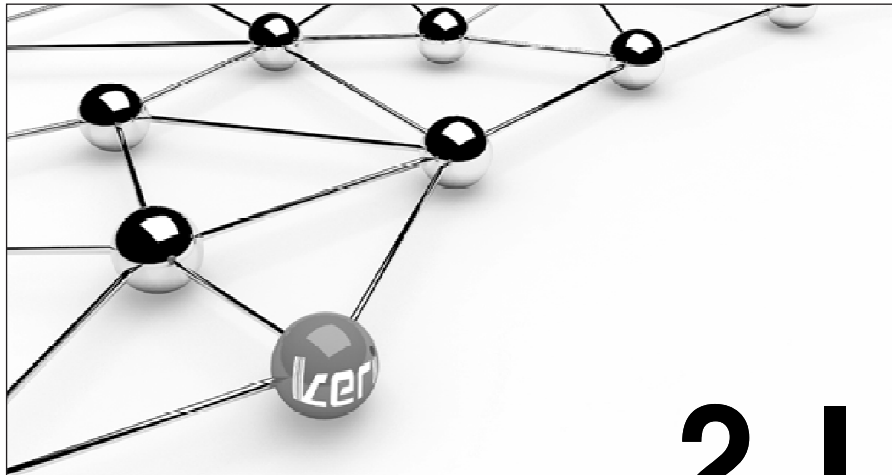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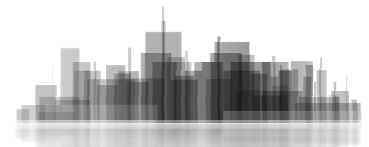
국내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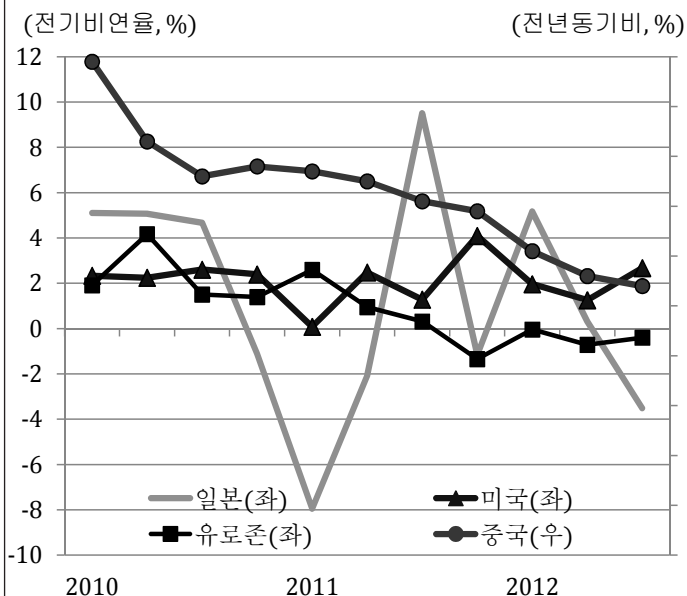
2.1

대외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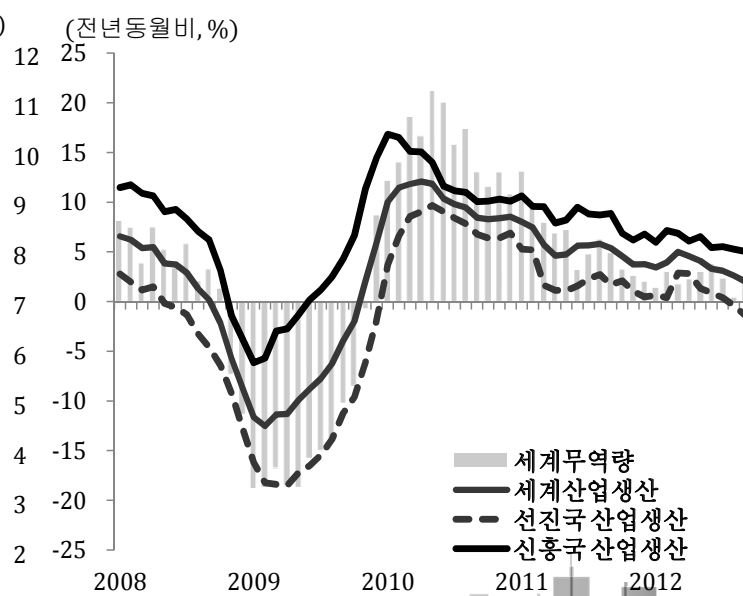
□ (세계경제성장) 유로존의 재정위기 해결 지연, 미국과 일본의 더딘 경기 회복 등으로 가시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IMF 3.6%, OECD 3.4%)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Oecd Stat, 중국통계청

<세계 교역량 및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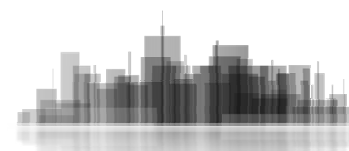
자료 : 네덜란드 CPB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세계경제성장) 유로존의 재정위기 해결 지연, 미국과 일본의 더딘 경기 회복 등으로 가시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IMF 3.6%, OECD 3.4%)

- (유로지역) 유로존 경제 전체가 위기 피로감 속에서 투자 및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2013년에도 경기부진은 지속될 전망
- (미국) 주택경기의 점진적 회복이 어느 정도 소비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고실업 상황에서 전체적인 경기회복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
 - 성장률 전망: 2.2% (2012년), 2.1%(2013년)
- (중국) 지도부 교체 이후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안정화 단계 진입 예상.
 - 7.8%(2012년), 8.2%(2013년)
- (일본) 지진복구 사업 등 종료되면서 성장세 둔화 전망
 - 2.2%(2012년), 1.2%(2013년)
- (신흥국) 선진국 수입수요 감소로 성장세 큰 폭 둔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IMF)

(단위: %, %p)

	실적치		2012.10월 현재 전망치		2012.7월 전망치와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2	2013
세계	5.1	3.8	3.3	3.6	-0.2	-0.3
미국	2.4	1.8	2.2	2.1	0.1	-0.1
영국	1.8	0.8	-0.4	1.1	-0.6	-0.3
유로존	2.0	1.4	-0.4	0.2	-0.1	-0.5
- 독일	4.0	3.1	0.9	0.9	0.0	-0.5
- 프랑스	1.7	1.7	0.1	0.4	-0.2	-0.5
- 이탈리아	1.8	0.4	-2.3	-0.7	-0.4	-0.4
- 스페인	-0.3	0.4	-1.5	-1.3	-0.1	-0.7
일본	4.5	-0.8	2.2	1.2	-0.2	-0.3
중국	10.4	9.2	7.8	8.2	-0.2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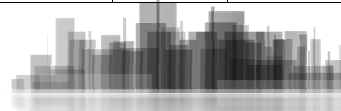


□ (국제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투기수요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초과공급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보다는 소폭 하락 전망

- (하락요인) 완만한 수요증가에 따른 초과공급 상황 예상
 - (수요) 선진국들의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원유수요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공급) 非OPEC 생산 증가로 인해 세계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 (재고) 전 세계 원유 재고도 2012년 연초 이후 증가추세

	유종	11년 평균	2012년				2013년			
			3/4	4/4	평균	1/4	2/4	3/4	4/4	평균
CGES(10/22)	Brent	112.2	109.0	111.0	112.4	108.6	100.4	99.5	-	103.1
CERA(10/30)	Dubai	106.18	106.31	103.22	108.02	92.02	91.13	93.12	93.18	92.36
EIA(10/10)	WTI	94.86	92.24	93.67	95.55	92.00	92.00	93.50	93.00	92.63
PIRA(10/26)	WTI	95.05	92.10	90.50	94.75	101.00	102.85	105.85	107.50	104.30

주: CGES(런던소재 세계에너지센터), CERA(美 캠브리지 에너지 연구소) EIA(美 에너지정보청) PIRA(석유산업연구소)
 자료: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





□ (주요국 환율) 엔화 및 유로화는 약세, 위안화는 완만한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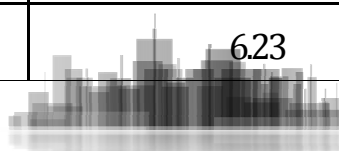
- (미달러) 미 연준의 QE3 확대 시행 등으로 달러 약세 예상. 하지만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저조한 일본 및 유로존 통화 대비는 강세
- (일본엔)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되는 가운데 자민당 집권에 따른 통화완화정책 기조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약세 기조 전망됨
- (유로) 재정위기국가들의 부채조정 과정에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유로화 약세가 예상
- (중국위안) 글로벌 경기침체현상 완화 및 주택 가격 회복 기대로 그 동안의 위안화 약세 흐름에서 완만한 절상추세로 반등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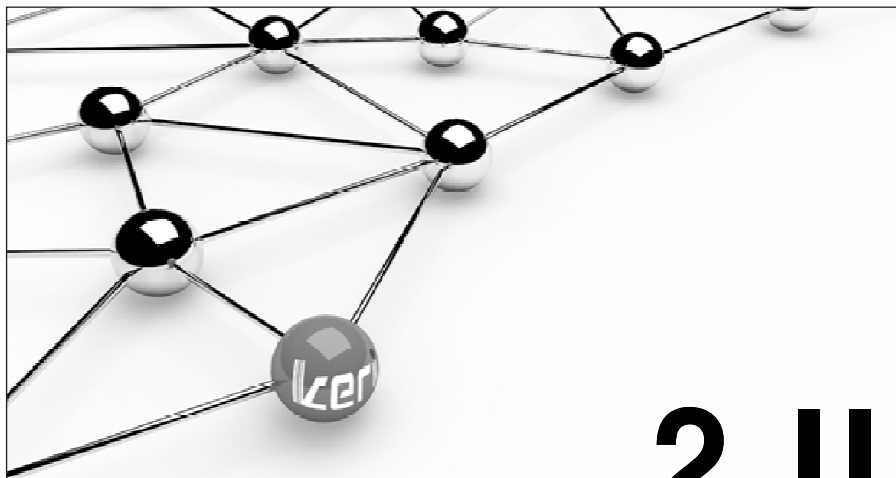
주요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

	3개월 후	6개월 후	9개월 후	12개월 후
엔/달러	80.54	80.91	81.59	82.34
달러/유로	1.29	1.28	1.27	1.25
위안/달러	6.29	6.28	6.26	6.23

16/43 주:JP모건 등 12개 투자은행들의 전망치이며 전망시점은 11/02~11/26
자료:국제금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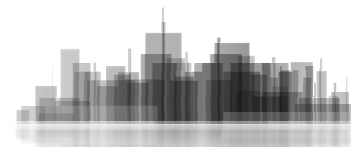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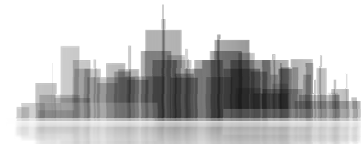
2013년 국내경제전망





□ 성장률: 2012년 2.2%, 2013년 2.9%

- 2013년 성장률, 3%미만의 저성장 전망
 - 미약한 글로벌 경기회복세 등 대외여건의 큰 폭 개선 어려움
 - 2013년 세계경제성장률 3.6%, 2000~2007년의 4.2%보다 낮은 수준
 - 원/달러 환율의 하락, 경쟁 격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수출여건 어려움
 - 대내여건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
 - 가계부문의 부채상환능력 저하로 내수부진 초래
 - 주택 매매가 하락, 전세가 상승의 조정과정으로 소비심리 위축
 - 경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여건도 제한적
 - 추가 금리 인하도 물가여건상 쉽지 않고 재정안정성 측면에서나 정책효과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의 시행도 제한적
 - 주요국 환율전쟁에서 원화가치를 안정적으로 지켜내기도 쉽지 않을 듯





2.Ⅱ 국내 경제전망

keri

주요기관 2013년 성장률 전망

(단위: %)

	발표시점	2012	2013
기획재정부	6/28	3.3	4.3
LG경제연구원	9/26	2.5	3.3
국회예산정책처	10/5	2.5	3.5
현대경제연구원	10/10	2.5	3.5
한국은행	10/11	2.4	3.2
금융연구원	11/5	2.2	2.8
산업연구원	11/21	2.2	3.1
KDI	11/23	2.2	3.0
한국경제연구원	12/7	2.2	2.9
중소기업중앙회	12/17	-	2.9

1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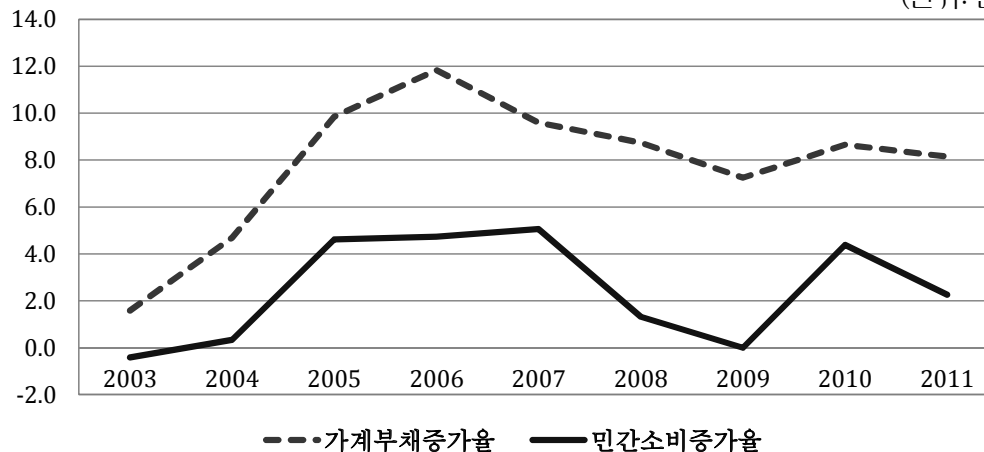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민간소비: 2012년 1.6%, 2013년 2.4%

- 2013년에는 수출회복 및 원/달러 환율하락에 따른 구매력 증가 등에 힘입어 2012년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계부채 조정 등 제약요인 또한 적지 않아 약 2%대 초반에 그칠 전망
- 향후 고용증가세 둔화, 주택시장 회복 지연도 소비제약 요인

가계부채와 민간소비

(단위: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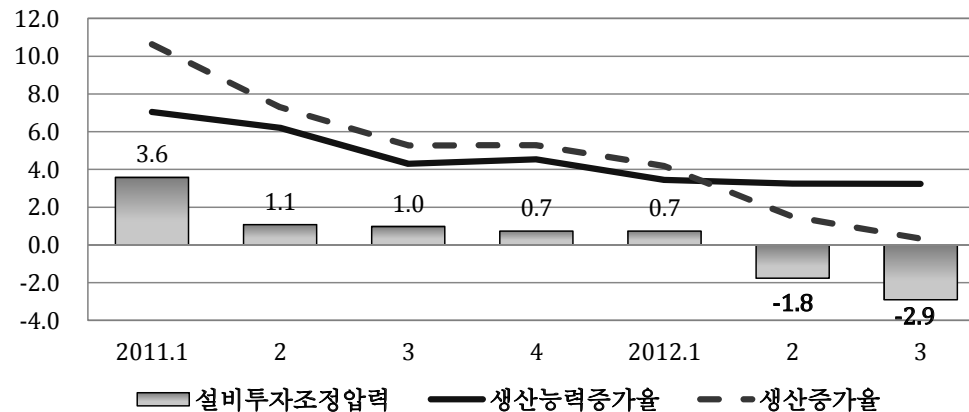


□ 설비투자: 2012년 - 1.0%, 2013년 3.4%

- 2013년 설비투자, 2012년보다 나아지겠으나 증가율은 3~4%정도로 완만한 수준에 그칠 전망
- 유럽위기 확산 진정, 미국 재정절벽 문제 수습, 국내 새 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전제로 할 때 수출이 회복되고 관련 설비투자가 반등
- 하지만 대외여건의 개선속도가 과거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수출회복세가 제한적 인데다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기업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

설비투자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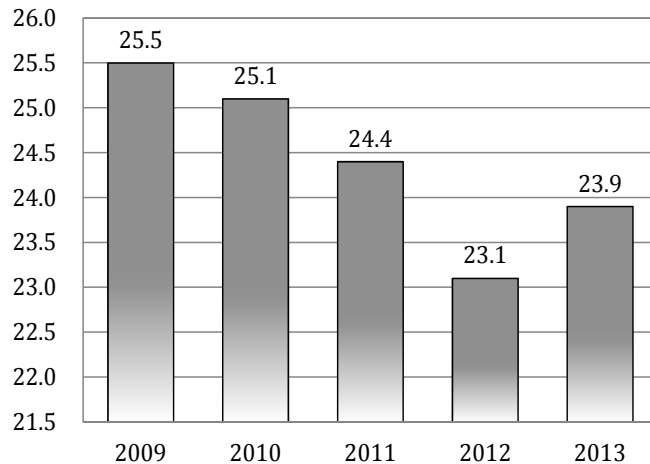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비, %, %p)



□ 건설투자: 2012년 - 0.3%, 2013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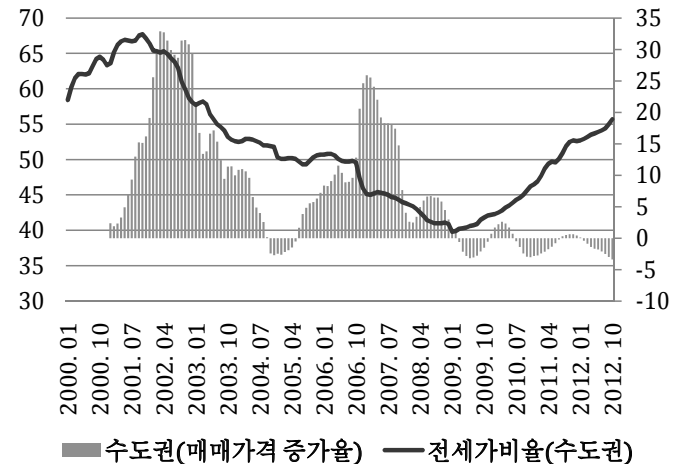
- 2013년 공공건설은 SOC예산 증가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민간주택건설이 수요부진 등의 영향으로 회복이 지연되면서 2013년 전체 건설투자는 연간 1~2%의 저성장에 그칠 전망
- 공급측면에서도 중견 건설업체들의 잇따른 부도로 인한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가 건설투자 회복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SOC관련 예산 추이 (단위: 조원)



22/43 자료: 기획재정부

수도권 전세가 비율 (단위: %)



자료: 국민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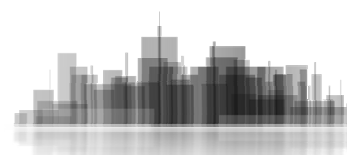


□ 수출(명목, 달러)증가율: 2012년 0.7%, 2013년 5.6%

- 2013년 글로벌 경기 침체 완화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보호무역 강화 등 무역여건 악화가 예상되면서 연간 약 5%대의 낮은 증가세에 그칠 전망
 - 원/달러 환율의 하락 전망도 2013년 수출 제약 요인

□ 수입(명목, 달러)증가율: 2012년 -0.3%, 2013년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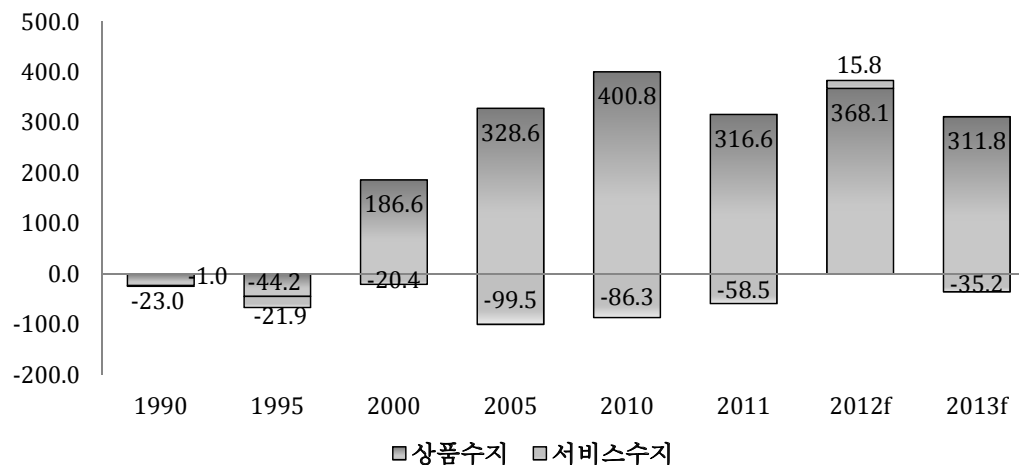
- 2013년에는 대내외수요 회복,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수출보다는 다소 높은 연간 약 7%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수출증가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 증가율이 높아지고 소비재수입도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할 전망



□ 경상수지 흑자: 2012년 395억 달러, 2013년 289억 달러

- 2013년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가 소폭 줄고 서비스수지도 악화되는 영향으로 289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
- 상품수지: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소폭 상회하면서 흑자 폭 축소
- 서비스수지: 원화절상, 경기회복 등으로 여행수지 적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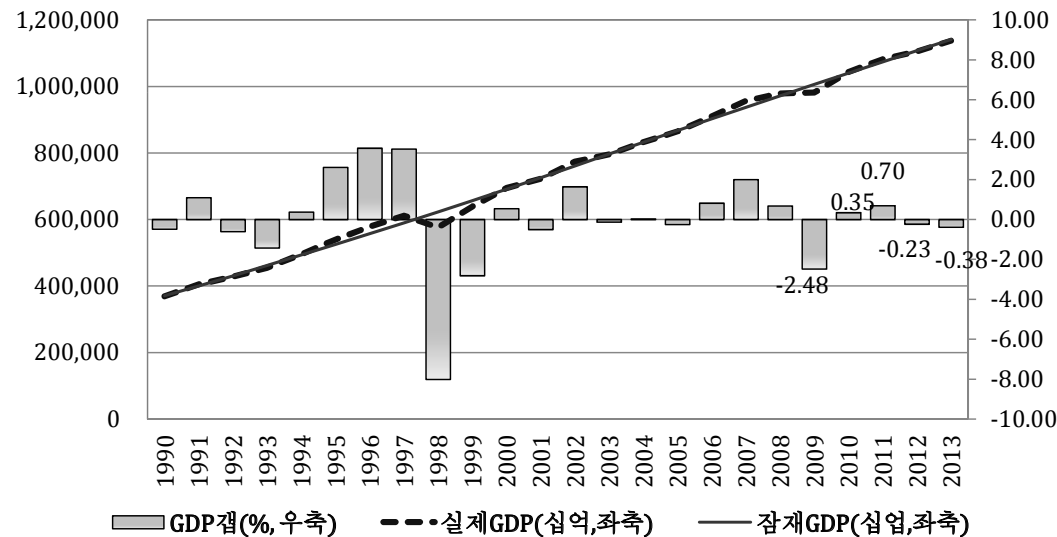
경상수지 추이



□ 소비자물가: 2012년 2.3%, 2013년 2.7%

- 대내외 수요회복이 크지 않아 2.5~3.0% 범위의 안정세
 - 2013년 성장률은 3%전후에 그쳐 디플레 갭이 지속될 가능성
 - 원화가치 상승 전망도 물가상승 제약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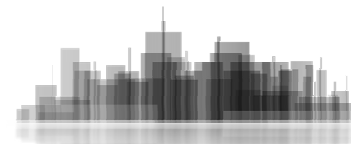
GDP갭 추이





□ 회사채수익률(3년, AA-): 2012년 3.7%(하반기 3.3%), 2013년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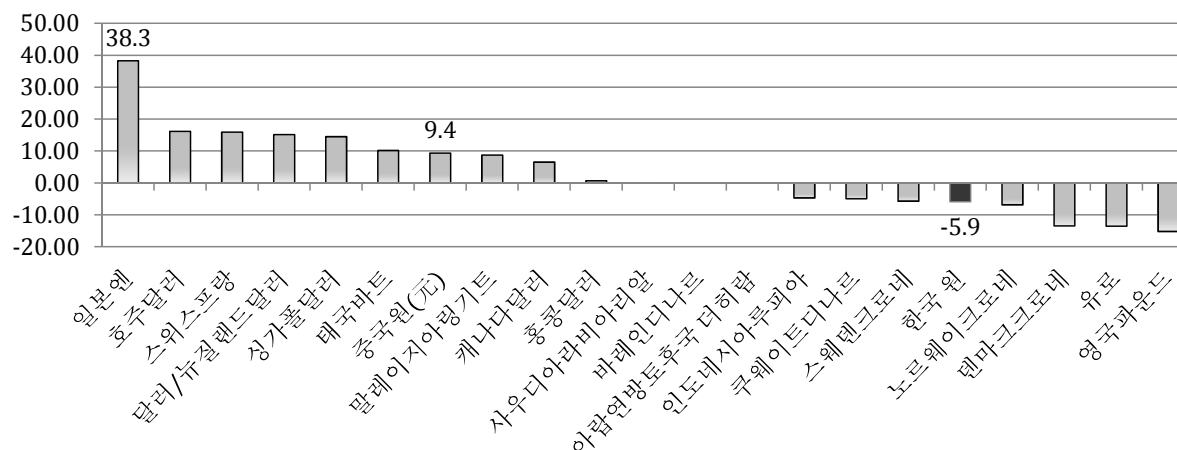
- 2013년 시장금리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
 - 유럽위기 불확실성 완화, 글로벌 경기의 반등 등으로 국내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이 점증하면서 시장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을 가능성
 -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이 다시 물가로 이동하면서 2013년 하반기 중에는 기준금리가 다시 동결내지는 인상기조로 전환될 가능성



□ 원/달러 환율: 2012년 1,128원/달러, 2013년 1,054원/달러

- 2013년, 원/달러 환율의 완만한 하락세 지속 전망
- 위험자산 기피현상 약화/경상수지 흑자 지속/국가신용등급 상승→해외자금 유입 지속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태
- 단, 국제공조의 불확실성이 부각될 때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강화되고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통화가치 변동률





2.Ⅱ 국내 경제전망

keri

2012 ~ 2013년 국내 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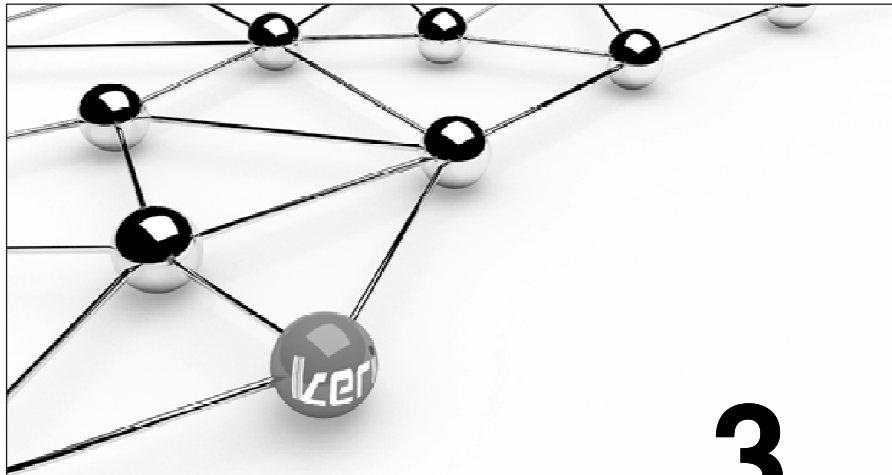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3.6	2.5	1.8	2.2	2.0	3.6	2.9
(SA전기비%)		1.2	0.6		1.3	2.3	
민간소비	2.3	1.3	1.9	1.6	2.0	2.8	2.4
건설투자	-5.0	-0.6	0.0	-0.3	1.1	2.0	1.6
설비투자	3.7	2.2	-4.2	-1.0	-0.2	7.2	3.4
소비자물가	4.0	2.7	1.9	2.3	2.5	3.0	2.7
경상수지(억달러)	260.7	137.5	257.8	395.3	89.1	200.1	289.2
상품수지(억달러)	316.6	111.3	256.8	368.1	99.9	211.8	311.8
수출증가율%	19.6	1.4	0.0	0.7	4.4	6.9	5.7
수입증가율%	23.4	2.3	-2.8	-0.3	5.0	9.3	7.2
상품수지와*	-55.9	26.2	0.9	27.1	-10.9	-11.7	-22.6
환율(원/달러평균)	1,108.0	1,141.7	1,113.3	1,127.5	1,071.5	1,036.5	1,054.0
회사채수익률(3yrsAA)	4.4	4.2	3.3	3.7	3.5	4.0	3.8
실업률(%)	3.4	3.6	3.4	3.5	3.5	3.3	3.4

28/43

주*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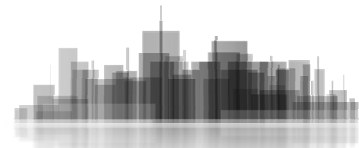




3

이슈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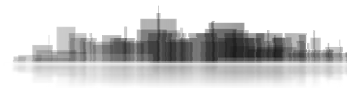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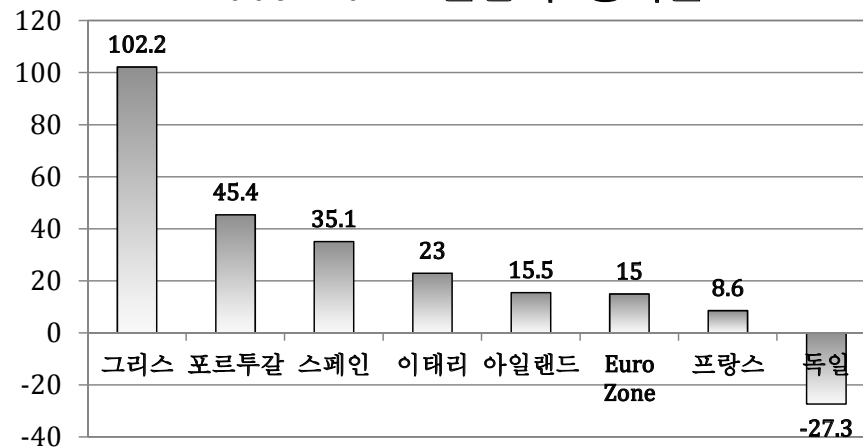
- 2013년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과 한국경제



□ 유럽 재정위기 재 부각 가능성

- 그리스, 유로존 잔류 후 엄격한 재정긴축으로 경기회복 불투명
 - 유로존 탈퇴 경우 2016년까지 GDP의 50% 손실 가능
 - 유로존 잔류 후에도 재정긴축을 인해 실업자 급증, 명목임금 하락 지속
 - 사회불안 및 정권변동 가능성 확대 (Pasok, 신민주당)

2009~2012 실업자 증가율



□ 유럽 재정위기 재 부각 가능성

- 스페인, 구제금융 가능성 확대
 - 최근 5분기 연속 (-) 성장세 지속
 - 재정적자 급증 ('12.1~9, 461억 유로, +22.8% yoy)
 - 신용등급 추가 하락 시 투자부적격 등급(BB+)으로 전락
 - 경제 상황 악화 전망 및 사회 불안 장기화 시 긴축정책 후퇴 가능성
 -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개혁 및 재정긴축을 저해하는 대표적 국가
 - 카탈루냐주의 분리독립 추진 등 정치적 불안정성
- 이탈리아도 정치적 불안 지속 속에 주변국 상황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위기 전염 가능성 상존
 - 중도좌파 민주당의 몬티 총리 사임, 내년 2월 총선
 - 중도우파 자유국민당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긴축안 반대
 - 2010년 GDP 대비 127%에 이르는 정부부채가 이탈리아의 최대 악재
 - 경기부진 불가피(OECD, 이탈리아 성장률은 올 - 2.2%, 내년 - 1%대)
 - GDP 의 1/4을 차지하는 지하경제



□ 유럽 재정위기 재 부각 가능성

- 유로존 정책공조가 차질을 빚을 경우 긴축정책에 대한 신뢰도 약화 및 국민 저항으로 확산되면서 위기 재 부각 가능성
 - 통화동맹뿐만 아니라 재정·은행·정치동맹도 필요한 상황
 - 위기 해결 및 통합 진전 과정에서 독일 등 일부 국가 반대 극복 난항
 - 그리스·스페인·이탈리 문제 해결에 최소한 3~5년 소요 예상
 - 합의된 약속들의 구체화가 지연될 경우 투자심리가 급속 냉각될 가능성
 - 현 상황 지속 > 은행동맹을 통한 위기확산 가능성 차단 > 일부 국가 유로존 탈퇴 > 유로존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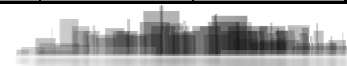




□ 미국 재정절벽 리스크와 이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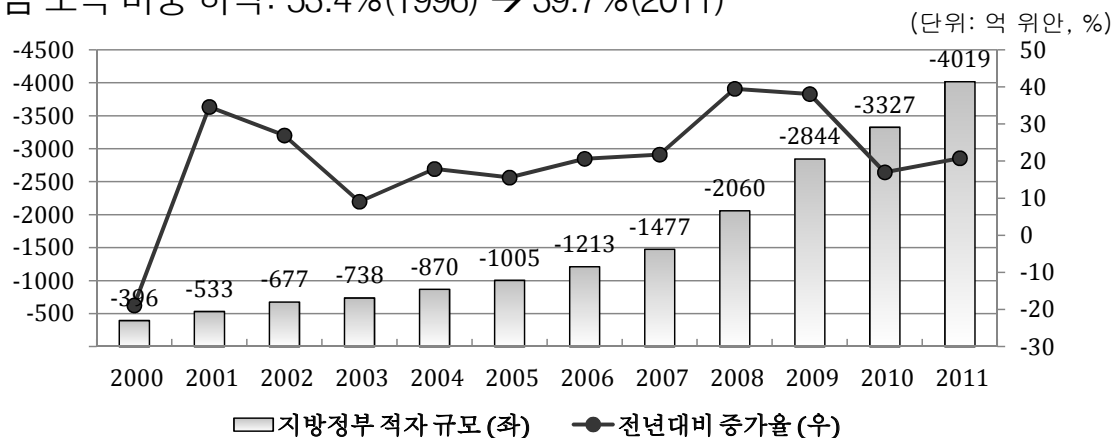
- 여야간 합의 실패로 재정절벽을 회피하지 못할 경우 미국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추락할 가능성
 - JP Morgan, 2013년 미국 성장률이 -0.9%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
- 재정절벽 회피를 위한 합의에 성공할 경우에도 긴급실업급여 종료 등 일부 조치는 점진적으로 실행될 것이므로 경기 둔화는 불가피

세금감면조치	전체 금액(억\$)	합의 실패			합의 성공		
		시행비율	시행금액	GDP 영향	시행비율	시행금액	GDP 영향
소득세 감면종료	3090	100%	3090	-1.5%	0%	0	0%
사회보장세 감면종료	1250	100%	1250	-0.6%	100%	1250	-0.6%
긴급실업급여 종료	400	100%	400	-0.2%	33%	130	-0.1%
예산통제법 지출축소	980	100%	980	-0.6%	50%	490	-0.3%
합계	5720		5720	-2.9%		187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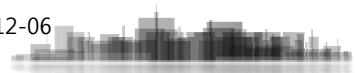


□ 중국, 8%대 미만 불안정한 성장 지속 가능성

- 지방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 시행 어려움 등 내수활성 효과 불확실
 - 중앙정부 재정여력 약화 / 지방 정부의 재정부실로 신규 자금조달 난항
 - 수익성이 낮은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과도한 투자
- 새 지도부의 탄생과 함께 사회불안 표출 가능성 증대
 - 도시 대비 농촌 1인당 소득 급락: 73.1%(1985) → 41.0%(2011)
 - 임금 소득 비중 하락: 53.4%(1996) → 39.7%(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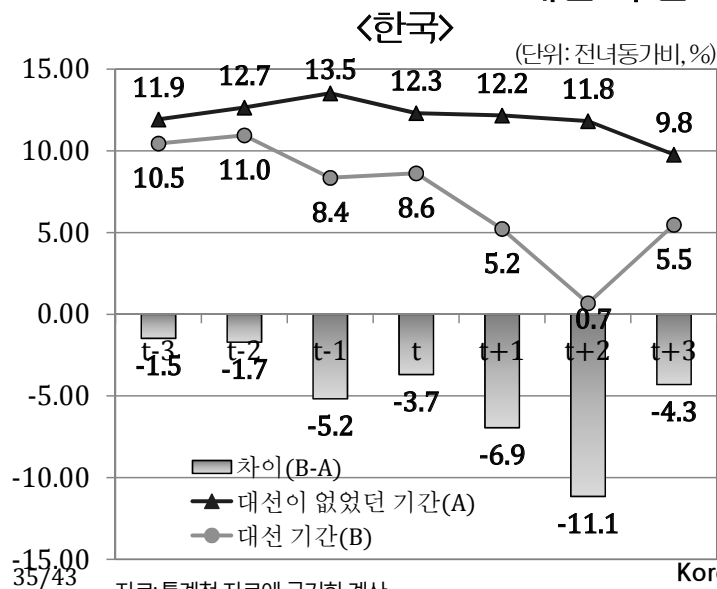
자료 : 허원제(2012) "해외 지방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과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관한 고찰" KERI Insight 1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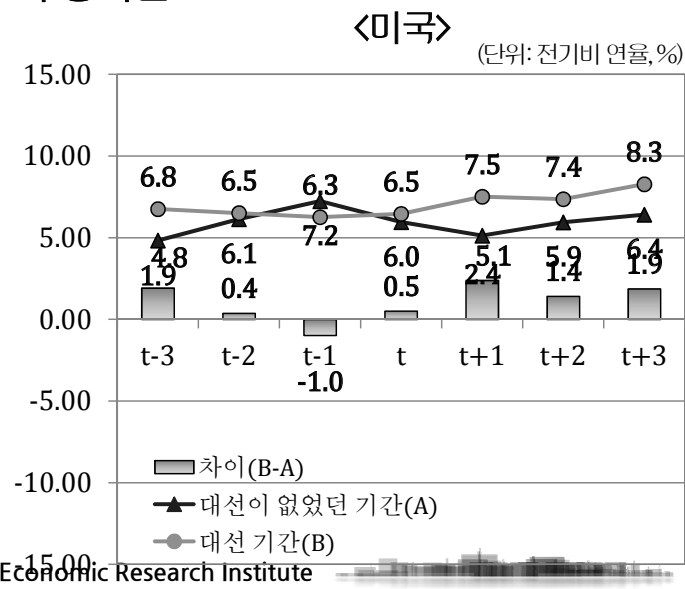
□ 대선 및 경제민주화 영향으로 설비투자 추가 위축 우려

-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대선 이후 설비투자 증가율에도 영향
 - 대선 기간을 포함한 4분기 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대선이 없던 해에 비해 약 6.5%p 낮은 수준
 - 특히 대선 이후 2분기 동안 설비투자 증가율은 평년에 비해 각각 6.9%p 및 11.1%p 낮아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대선 과 설비투자 증가율



자료: 통계청 자료에 근거한 계산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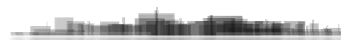
□ 대선 및 경제민주화 영향으로 설비투자 추가 위축 우려

- 출자총액제한(이하 출총제),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투자의 추가 위축 가능성
 - 출총제 제한집단의 유형자산 증가율은 비제한 집단에 비해 낮아 출총제가 기업의 실물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분석 ('00-'10 평균 5.9%p)
 - 순환출자 규제 또한 기업의 재원을 경영권방어에 집중시킴으로써 투자를 저해

출총제와 유형자산 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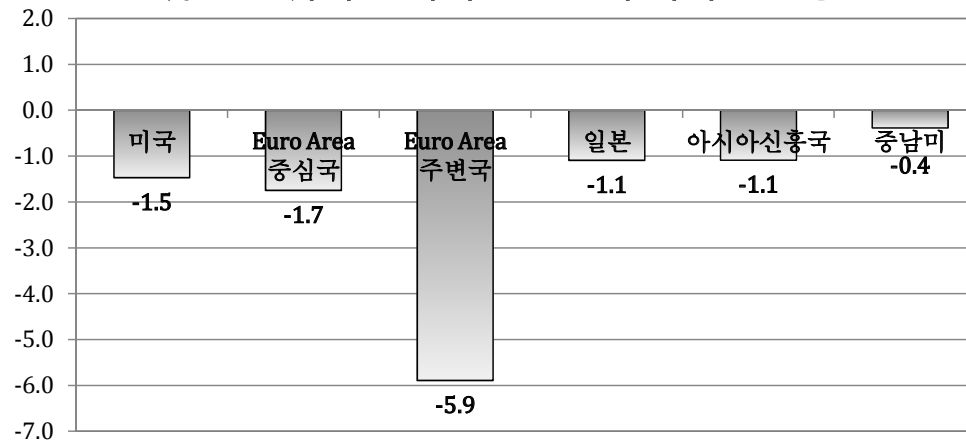
	'00-'10		'00-'08		'09-'10	
	비제한	제한	비제한	제한	비제한	제한
건물	98	53	92	50	128	69
구축물	60	52	37	33	166	140
기계장치	113	47	96	24	188	152
차량운반구	20	72	11	12	57	342
공구와기구	182	32	207	35	69	19
합계	107	48	93	35	168	105



□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기본 전제

- (전제 1) 유로존 위기 심화, 미국 재정절벽 및 중국의 성장 둔화 등 대외 리스크가 현실화로 세계경제성장률이 2.0%로 하락(IMF World Economic Outlook과 동일하게 기본전망 3.6%대비 약 1.6%p 하락)

유로존 위기 심화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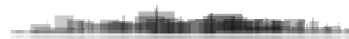
주1: Euro Area 주변국(심한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주2: Euro Area 중심국(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기본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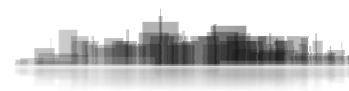
- (전제 2) 대선 및 ‘경제민주화’ 공약 등에 따른 대내불확실성으로 2013년 설비투자가 - 4.5%까지 하락(기본전망 3.4%대비 약 8%p 하락)
 - 과거 대선 기간 포함 4분기 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은 대선이 없던 해에 비해 약 6.5%p 낮은 수준이었음
 - 대선 불확실성에 경제민주화에 따른 기업 투자심리 위축을 추가로 고려(출총제 제한기업의 유형자산 증가율은 비제한기업에 비해 약 5.9%p 낮았음)





□ (결과) 2013년 성장률은 2.9%에서 1.8%로 추락

전제		2013년 국내 성장률 전망
시나리오1	유럽위기미해결+미국재정절벽 →IMF전망과같이세계경제성장률3.6%에서2.0%로하락	2.9%→2.3% (0.6%p하락)
시나리오2	대선이후투자심리불안+경제민주화 →국내설비투자증가율3.4%에서-4.5%로하락	2.9%→2.4% (0.5%p하락)
시나리오1+2		2.9%→1.8% (1.1%p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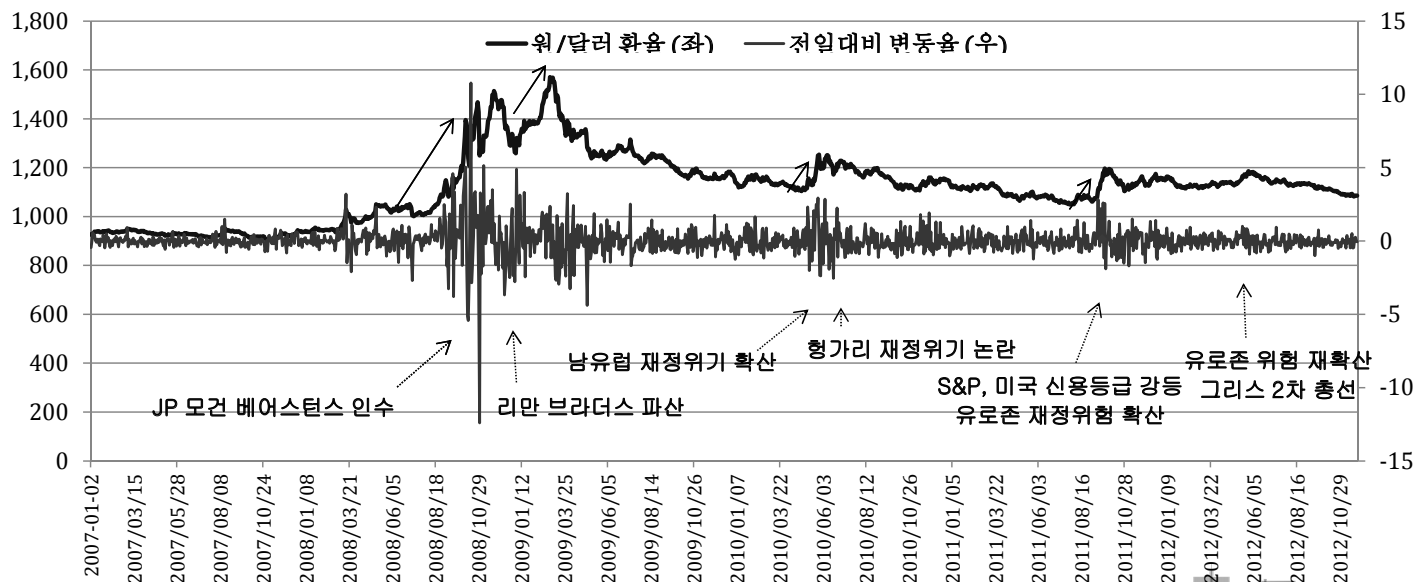


□ (결과) 2013년 성장률은 2.9%에서 1.8%로 추락

- 또한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금융 및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 2008년 이후 원/달러환율은 해외 불안정성 확대 시 급등
 - 국내 경제성장 하락 시 투자심리 위축으로 유입자본의 급속한 유출 가능성

원달러 환율 및 변동성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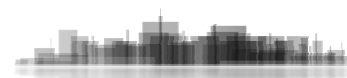
□ 시사점

- 쏠세게적인 부채 구조조정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
 -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성장률 1%대로 추락
- 하지만 정부 및 가계는 경기회복을 지탱할 여력이 크지 않아 현재로서는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책
 - 재정 건전성을 개선해야 하는 정부는 추가적 경기부양책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고 가계부문도 주택시장의 침체, 가계부채 등으로 소비여력 한계
- 투자 및 고용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추진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또한 외환시장 변동성의 주요 요인인 단기 투기자금 및 은행의 단기차입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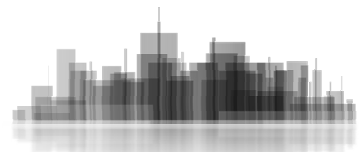
-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조의 조기 확립이 반드시 필요
 -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고하는 정책 필요
 - 취득세 인하, 양도소득세 감면 지속 등 거래비용 인하를 통해 부동산거래 활성화 → 가계 소비 자금 확보
 - 역모기지, sale & lease-back 등으로 고령층 소비기반 확보
 - 정권 초기 정책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기업의 투자 여건 조성
 - 내수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모색해야 함
 - 서비스산업은 국내시장 분할을 두고 다투는 zero-sum game이 아님
 - ✓ NLCS, KIS, BHA, SJA... 해외유학수요의 국내 전환만으론 부족
 - 서비스산업의 시장확대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확대에 기여





감사합니다

Thank You



2013년 제주경제 전망

고 봉 현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년 제주 경제 전망

2012. 12. 27
제주발전연구원



INDEX



I 국내·외 경제여건

II 2012년 제주경제 진단

III 2013년 제주 경제 전망

I. 국내·외 경제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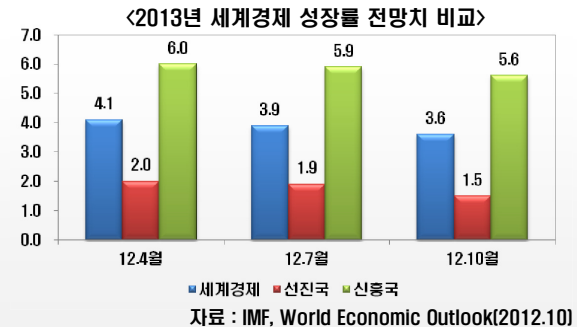
I. 국내·외 경제여건



세계경제 여건

低성장 지속 전망

- 2013년 세계경제는 선진국 부진 심화와 신흥국 회복 지연으로 低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 세계 주요국 재정 여력 약화 및 소비·투자심리 위축
 - ✓ [신흥국] 대내외 수요 약화 등으로 과거에 비해 성장세 둔화
 - ※ 동 전망은 유럽의 유로존 위기 해소를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 미국의 재정 절벽 방지책 합의 등을 전제한 것임



국가별 경제전망

- [미국] 완만한 개선추세를 이어가겠으나 재정건전화 추진이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 성장률 전망 : 2012년(2.2%) → 2013년(2.1%)
- [유로지역] 2013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겠으나 성장세는 미약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 성장률 전망 : 2012년(-0.4%) → 2013년(0.2%)
- [중국] 지도부 교체 이후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안정화 단계 진입 예상
 - ✓ 성장률 전망 : 2012년(7.8%) → 2013년(8.2%)
- [일본] 지진복구 사업 등이 종료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 성장률 전망 : 2012년(2.2%) → 2013년(1.2%)

주 : IMF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한국경제연구원

I. 국내·외 경제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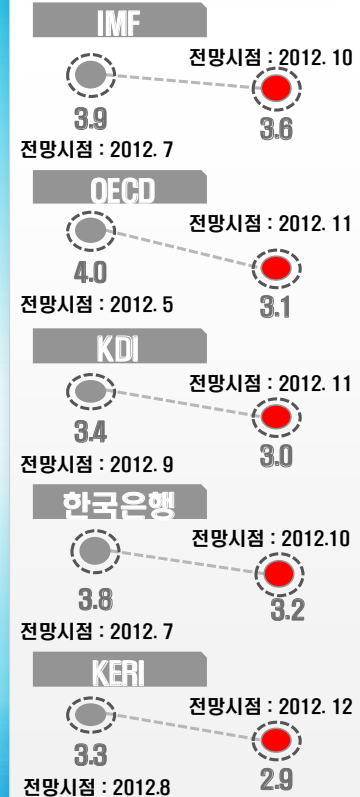


국내경제 여건

국내경제 성장률 3%대 초반

- 세계경제 부진 영향과 국내 하방리스크 상존으로 저성장 지속 전망
- 부문별 전망
 - ✓ 민간소비 : 2.4~3.0% 전망
 - 대외 불확실성 완화, 가계의 실질구매력 증대(명목임금 상승, 취업자수 증가, 원화 가치 상승, 물가안정 등) 등에 힘입어 다소 증가 전망
 - 다만,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 가계부채 상환부담 등으로 회복속도는 여전히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 설비투자 : 3.4~5.3% 전망
 - 국내외 경제의 성장세 약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당분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힘들 것으로 전망
 - 다만,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중소·중견기업의 투자활력 제고에 기여 가능
 - ✓ 건설투자 : (1.6~2.9%)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증가세 전망
 - ✓ 고용 : 취업자수 증가, 실업률 하락 등 양적 회복세 지속 전망
 - ✓ 소비자물가 : 2.5% 내외 전망
 - 국제곡물가격 상승, 중동지역 정세불안, 공공요금 인상압력 등의 공급측 상승요인이 있으나, 경기부진 지속으로 수요측 압력이 낮아 안정세 지속 전망
 - ✓ 경상수지 : 해외수요의 점진적인 회복과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흑자규모는 300억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

2013년 경제성장률



I. 국내·외 경제여건



국내경제 여건

국내 하방 리스크

- 수출 부진
 - ✓ 수출부진이 계속되면서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전망
 - ✓ 이는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투자 위축을 동반할 가능성
- 소비부진 지속 우려
 - ✓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
 - ✓ 하우스푸어 발생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 가계부채 급증 우려
 - ✓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이 최대 잠재 불안요인으로 부각
 - ✓ 이는 가계부채발 국내 금융 및 실물의 복합 불황을 촉발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
 - 대내외 충격 발생 시 부채상환비율(DSR)이 높은 저소득층, 하우스푸어, 다중채무자, 은퇴생활자 등 상환여력이 낮은 차입군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실 확대 가능성 높음
 - 기업부문에서는 본격적인 경기회복 지연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연체율이 높아지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

Ⅱ. 2012년 제주 경제 진단

표. 2012년 제주 경제 진단



감귤류 가격 호조 영향, 농산물 출하액 증가

농산물 출하액 소폭 증가

- 주요 발작물(무)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감귤류 가격 호조 영향으로 농산물 출하액은 소폭 증가(3.8%)



주 : 계통출하기준,
1월~10월까지의 농산물 공동판매사업 실적 합계임
자료 :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2012년산 감귤 생산 증가

- 노지감귤 생산량 : 11년산 54.9만톤→12년산 56.4만톤^p
- 12년산 노지감귤 출하량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전체 감귤 출하량 증가

12년산	계	노지	하우스	월동	한라봉
출하량 증가율	6.1%	8.8%	-9.0%	-10.7%	32.0%

주 : 노지(12.9~11월), 월동(12.1~5월), 하우스(12.4~11월), 한라봉(12.1~6월)
자료 : 제주감귤출하연합회

발작물 가격 하락

- 주요 발작물(무, 당근, 마늘) 가격 하락
- 발작물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 가격은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태풍과 강우의 영향으로 제주도 의 당근, 감자 포전이 피해를 입어 월동무로 대파되면서 파종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제주특별자치도)

	2012	전년대비
양배추	96.2	13.5
무	71.0	-21.1
당근	132.2	-12.6
감자	112.0	6.7
양파	96.2	4.3
마늘	125.2	-5.3

주 : 소비자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1월~10월 평균임
자료 : 통계청

표. 2012년 제주 경제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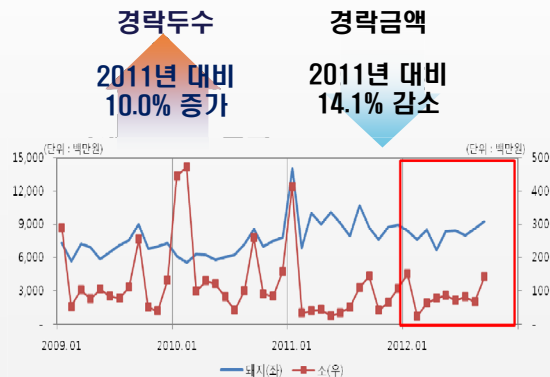


양돈 가격 하락 영향, 축산업 부진

축산업 전반적인 출하액 감소

- 출하물량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양돈 가격 하락으로 전체 축산 출하액은 감소
- ✓ 양돈 경락두수 증가로 가격이 크게 하락한 데 따른 영향

※ 사육두수(2012.3분기 기준, 통계청)
: 전국 27.7%, 제주 6.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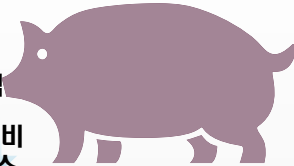
주: 경락금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가수취가격 환산 방식을 적용, 1~10월까지의 합계임
도매시장 경락두수 및 경락가격 이용(작업장:제주축협)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돈 출하액 감소

- 물량은 회복세를 보이거나, 가격이 2011년 대비 22.0% 감소하여 출하액은 감소
- ✓ 국내 공급량 증가 영향

경락두수 경락가격 경락금액

2011년 대비 10.0% 증가 2011년 대비 22.0% 감소 2011년 대비 14.2% 감소



소 출하액 감소

- 가격이 다소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나, 물량 감소폭이 커서 전반적인 출하액은 감소

경락두수 경락가격 경락금액

2011년 대비 11.6% 감소 2011년 대비 1.5% 증가 2011년 대비 10.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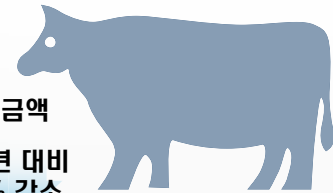


표. 2012년 제주 경제 진단

일반해면어업 부진 영향, 수산업 부진

수산업 생산 부진

- 2011년 대비 생산량 9.2%, 생산금액 7.7% 감소



천해양식-넙치

- 넙치는 생산량 및 생산금액 모두 증가
- 넙치류 수출소폭 증가

✓ 미국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비중 역시 증가(2.4%→6.1%)

- 일본 : 수출량 3.4% 감소
- 미국 : 수출량 159.1% 증가

생산량
2011년 대비
8.9% 증가

생산금액
2011년 대비
4.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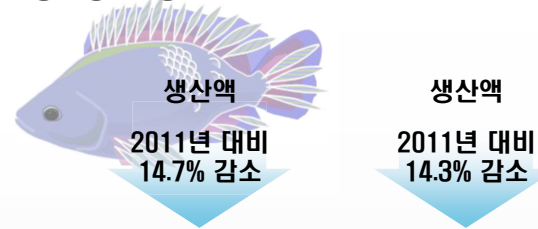
단위 : M/T, 백만원, 만\$, %

넙치	2012년		전년대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생산	20,192	219,416	8.9	4.8
수출	1,896	2,550	0.8	3.4

주 : 수출(HSK, 0301998000), 1월~10월 집계임
2012년 생산 자료는 잠정치임

일반해면어업

- 2011년 대비 생산량 14.7%, 생산금액 14.3% 감소
- ✓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갈치의 어획이 크게 부진하면서 생산량 및 생산금액 모두 감소



단위 : M/T, 백만원, %

어법/연도		2012년		전년대비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일반해면 어업	합계	49,004	313,979	-14.7	-14.3
	갈치	12,137	170,577	-14.4	-15.2
	참조기	5,354	35,360	-34.6	-42.9
	옥돔	991	18,242	45.9	40.3
	고등어류	2,979	6,355	-35.8	-12.8
	멸치류	10,080	2,368	9.0	-38.2

주 : 1월~10월까지의 집계임, 2012년은 잠정치임

표. 2012년 제주 경제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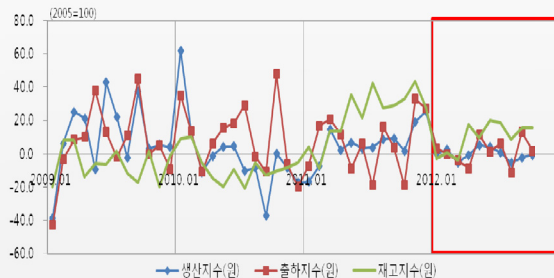


제조업 생산 약보합세

2011년 대비 소폭 하락

- 제조업 생산지수는 2011년 대비 0.2% 하락 반면, 출하지수 1.0% 상승, 재고지수 9.6% 상승

생산지수 2011년 대비 0.2% 하락
출하지수 2011년 대비 1.0% 상승
재고지수 2011년 대비 9.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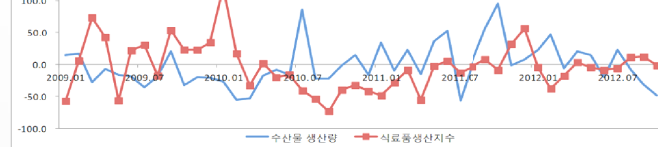


주 : 1~10월 평균,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부문별 동향

- 식료품(45.0%), 음료(12.8%), 비금속 광물제품 (16.0%) 이 전체 제조업의 약 74%를 차지(2010년 경제총조사기준)
-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생산지수가 하락한 반면,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은 상승

✓ 식료품 생산 부진은 수산물 생산량이 부진한 데 따른 영향



생산지수

식료품

2011년 대비 7.4% 하락

음료

2011년 대비 1.6% 하락

비금속광물제품

2011년 대비 6.1% 상승

재고지수

식료품

2011년 대비 2.9% 상승

음료

2011년 대비 2.9% 하락

비금속광물제품

2011년 대비 49.1% 상승

표. 2012년 제주 경제 진단



관광산업 호조세 지속되나, 내국인 관광객은 증가세 둔화

관광객수 및 관광수입 증가

- 전체 관광객수와 관광수입은 2011년 대비 12.1%, 26.5% 증가
 - ✓ 외국인 관광객 큰 폭 증가(70.5%) 영향
 - ✓ 직항노선 확대, 국제 크루즈선 입항 증가, 해외 현지 홍보 강화 등 영향

전체 관광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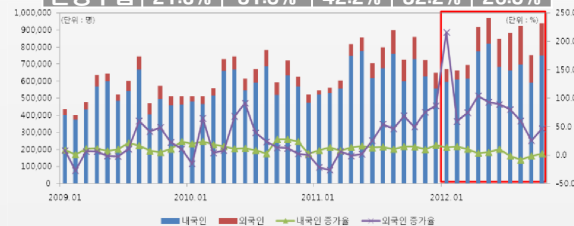
2011년 대비
12.1% 증가

전체 관광수입

2011년 대비
26.5% 증가

- 다만, 증가율 둔화 양상 보임

누계	10.10월	11.10월	12		
			1월	5월	10월
관광객수	16.9%	14.6%	22.8%	15.7%	12.1%
관광수입	21.0%	31.8%	42.2%	32.2%	26.5%



주 : 1월~10월까지의 합계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세부 동향

- 내외국인 관광객수 및 관광수입 모두 증가
 - ✓ 내국인 관광객수(4.4%) 및 관광수입(4.4%) 증가
 - ✓ 외국인 관광객수(70.5%) 및 관광수입(74.7%) 증가
 - ✓ 다만, 내국인 관광객은 증가세 둔화 양상 보임

누계	10.10월	11.10월	12		
			1월	5월	10월
관광객수	15.8%	13.1%	14.1%	9.0%	4.4%
관광수입	20.8%	21.9%	15.9%	10.0%	4.4%

- ✓ 전체 대비 외국인 관광객수 및 관광수입 비중 증가
: 관광객수(11.6%→17.7%), 관광수입(31.4%→43.4%)

- 형태별(개별, 단체별) 관광객수 및 관광수입 모두 증가

- ✓ 개별관광(4.8%, 4.3%), 단체관광(2.9%, 4.8%)

- 목적별 : 휴양및관광 관광객수(10.0%) 및 관광수입(8.8%) 증가

레저스포츠	휴양및관광	회의및업무	교육여행
2.8%, 3.2%	10.0%, 8.8%	2.0%, 1.7%	6.3%, 5.5%

- 외국인 관광객수 및 수입은 중국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

중국	일본	기타 아시아지역	서구권
102.3%, 119.6%	11.5%, 14.9%	52.1%, 17.3%	17.0%, 48.0%

표. 2012년 제주 경제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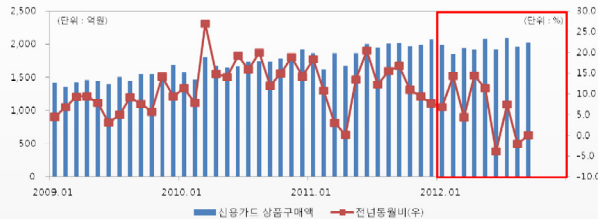
소비 증가세 둔화 영향, 도소매업 증가세 둔화

소비 증가세 둔화

- 소비심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증가 및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상품구매액 및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지속되나, 증가세 둔화 양상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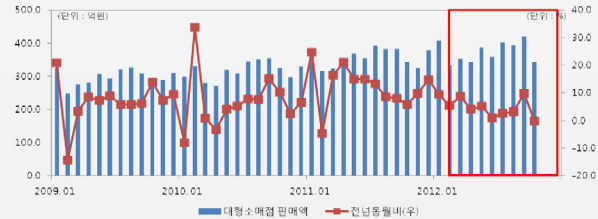
- 신용카드 이용상품구매액 증가세 둔화

✓ 10.9월(15.8%), 11.9월(12.2%), 12.9월(5.5%)



-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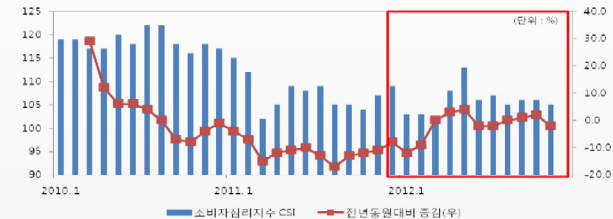
✓ 10.10월(6.9%), 11.10월(11.9%), 12.10월(4.9%)



주: 누계 기준, 지수는 평균 자료이므로 소수점에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한국은행 제주본부, 통계청, 시장경영상진총원

- 소비자심리지수 CSI 하락. 단, 하락폭(-1.5p) 둔화

✓ 2011년(107.4), 2012년(105.8)



- 시장경기동향지수 하락. 단, 하락폭(-0.7p) 둔화

✓ 2010년(77.6), 2011년(62.9), 2012년(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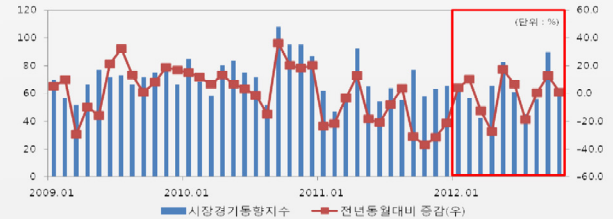


표. 2012년 제주 경제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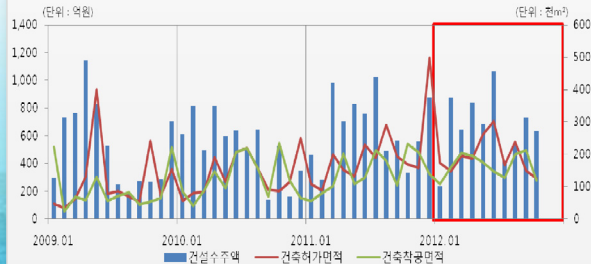
건설경기 호조세 둔화

건설경기 호조세 둔화

-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대비 11.1% 증가
- 건축착공면적은 전년대비 17.3% 증가
- 건설수주액은 2011년 대비 3.0% 증가
 - ✓ 혁신도시 이전 등 공공부문 수주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영향
 - ✓ 작년부터 이어진 도시형생활주택 등 민간부문의 지속적인 수주 증가 영향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민간 수주는 감소

▪ 미분양주택 : 377.8% 증가,

11.10월(176호)→12.10월(841호),



주 : 1월~10월까지의 합계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국토해양부

세부 동향

건축허가면적

2011년 대비
11.1% 증가

주거용

2011년 대비
12.9% 증가

비주거용

2011년 대비
9.3% 증가

건축착공면적

2011년 대비
17.3% 증가

주거용

2011년 대비
43.5% 증가

비주거용

2011년 대비
5.7% 감소

건설수주액

2011년 대비
3.0% 증가

민간

2011년 대비
5.0% 감소

공공

2011년 대비
20.0% 증가

미분양주택

2011년 대비
377.8% 증가

85㎡초과

2011년 대비
29.4% 감소

85㎡이하

2011년 대비
544.0% 증가

표. 2012년 제주 경제 진단



고용여건 지난해 비해 소폭 개선

고용여건 소폭 개선

- 산업별로는
 - ✓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중심으로 증가세 보임
 - ✓ 농림어업 분야의 고용 비중(22.0%)이 전국(6.3%) 대비 상당히 큰 편임
- 여성 취업자수 증가율(3.3%, 130.4천명 → 134.7천명)이 전국(2.0%)을 상회
- 연령별로는
 - ✓ 40세 이상 연령층 취업자는 증가한 반면, 20·30대 취업자는 부진
 - ✓ 20대(-0.4%), 30대(-2.2%), 40대(1.1%), 50대(5.6%), 60세 이상(5.0%)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임시·일용직근로자는 증가
 - ✓ 상용근로자(4.7천명 → 3.0천명)
 - ✓ 임시·일용직근로자(-0.6천명 → 2.8천명)

주 : 1월~10월까지의 평균임

자료 : 통계청

고용 관련 지표 동향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고용률	실업자	실업률
2011년 대비 0.8% 증가 (294.2→299천명)	2011년 대비 1.8% 증가 (288.8→293.9천명)	2011년 대비 0.7%p 증가	2011년 대비 6.7% 감소 (5.4→5천명)	2011년 대비 0.2%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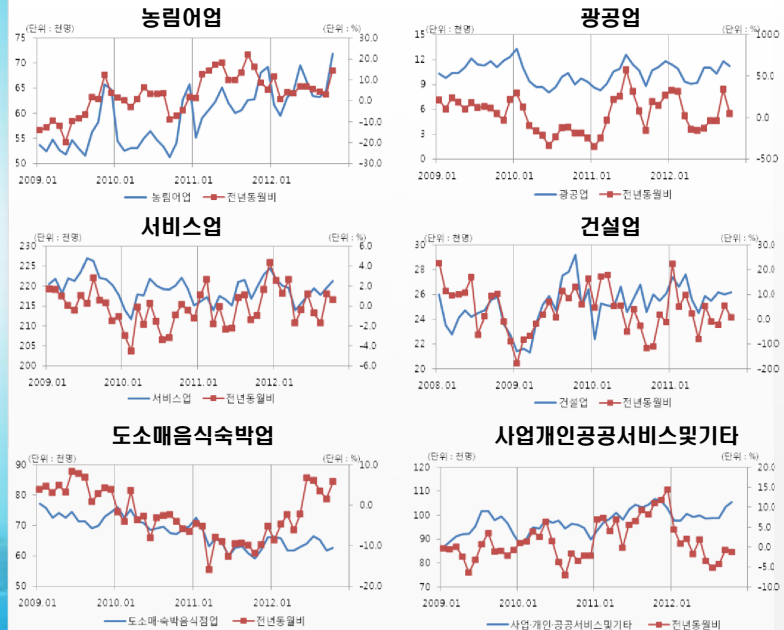


표. 2012년 제주 경제 진단



물가 상승세 크게 둔화

물가 상승세 크게 둔화

● 물가상승세 둔화, 전국 대비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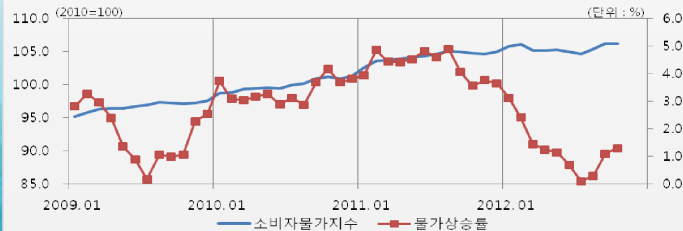
- ✓ 전국(103.8→106.2, 2.3%), 제주(104.2→105.5, 1.3%)
- ✓ 전년 상승률이 높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오름세 크게 둔화

- ✓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인 농수축산물은 4.2%의 상승세를 기록해 서민체감물가에 대한 부담감 여전

- 특히, 농산물의 상승세가 농수축산물의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보임

● 공공 및 개인서비스의 감소 영향으로 서비스물가

하락



품목성질별 물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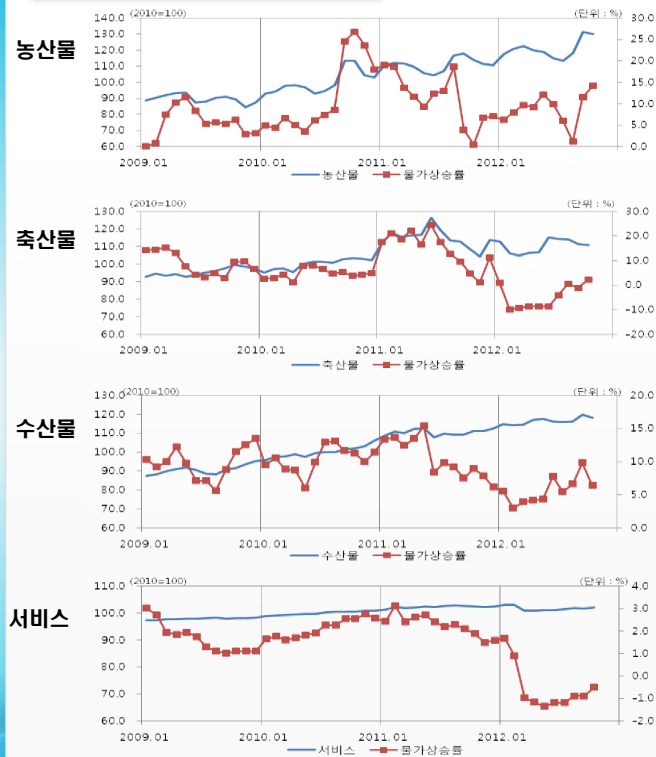


표. 2012년 제주 경제 진단



2012년 제주경제 평가

구분	평가		구분	평가	
1차 산업	❖ 농산물 출하액 증가 -감귤가격 호조		소비	❖ 증가세 지속 ❖ 다만, 전년대비 다소 둔화	
	❖ 축산 및 수산업 부진		건설	❖ 호조세 둔화	
제조업	❖ 전년수준 유지 ❖ 다만, 수요감소에 따른 재고 증가		고용	❖ 소폭 개선	
관광	❖ 호조세 지속		물가	❖ 상승세 크게 둔화	
	❖ 다만, 내국인 관광객 증가세 둔화				



Ⅱ. 2013년 제주 경제 전망

표. 2013년 제주 경제 전망



2013년 제주 경제성장률 3.0% 내외

전제조건

- 2013년 세계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을 전제
✓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3.1%, 한국은행과 KDI의 평균) 적용
- 외국인 관광객 목표치 200만 명 달성 전제
- 감귤생산량 관측치 : 60만톤 전제
- 수출 목표치 : 6억불 전제
- 원/달러 환율 : 1,054원 전제(한국경제연구원 전망치)

경제성장 전망

- 13년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은 외국인 관광객 중심으로 관광부문이 호조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1차산업 및 건설업의 부진이 예상되면서 12년 수준을 하회하는 3.0% 내외를 기록할 전망
- JDI-EFM11모형(공급중심 연간모형)에 의한 전망

제주지역 GRDP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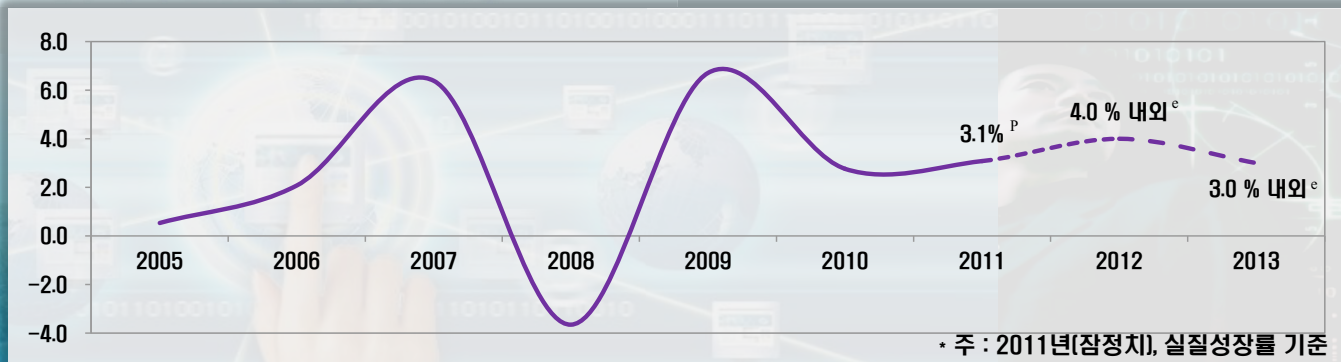


표. 2013년 제주 경제 전망



1차 산업 전반적으로 부진할 전망

1차산업

- [농업]해거리현상으로 인한 감귤 생산 감소, 주요 월동채소류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제주지역 농산물 생산 부진 전망

✓ 노지감귤 생산량 : 11년산 54만톤 → 12년산 56만톤 → 13년산 노지 및 하우스 중심으로 재배의향면적 감소

	온주			만감류		계
	노지	월동	하우스(가온)	한라봉	기타	
증가율	-1.5	7.9	-4.5	2.9	10.0	-0.4

자료 : 농업관측센터10.31(월동온주), 11.30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 12년산 주요 월동채소류 재배의향면적 전년대비 2.1% 감소 전망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월동무		당근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	
	11년	12년	11년	12년	11년	12년	11년	12년	11년	12년
재배면적 [증가율]	4,456ha	4,732ha [6.2%]	1,549ha	1,112ha [-28.2%]	908ha	882ha [-2.9%]	1,699ha	1,685ha [-0.8%]	1,373ha	1,295ha [-5.7%]

- [축산업]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비 상승 영향으로 12년 4분기 이후 양돈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수요 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부진할 전망

사육두수	6월	9월	12월	3월
2012~13년	943.3	993.7	980~990	940~960
2011~12년	733	778.3	817.1	885.2
2010~11년	972.7	990.1	988	703.6
12/11년 증가율	28.7	27.7	19.9~21.2	6.2~8.5
12/10년 증가율	-3.0	0.4	-0.8~0.2	33.6~36.4

자료 : 통계청, 가축동향(12.12월 이후는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 [수산업]기상여건, 해수온 등 불확실성 내재된 가운데, 일반해면 어업의 부진은 갈치를 중심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낚치 : 일본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전망

표. 2013년 제주 경제 전망



외국인 증가, 내국인 관광객 정체 내지는 증가세 둔화 가능성

관광 산업

●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 위한 긍정적 여건 조성

- ✓ 국제 크루즈선 운항 횟수 증가 및 유치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청 해양개발과)
 - 12년(80회, 14만명) → 13년(156회, 35만명 예상)
 - 세계 3대 메이저, 코스타크루즈와 업무협약 체결(2척, 10만명 유치 예정)
 - 해외 관광시장 판촉홍보 강화

✓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 예산 증가

	10년	11년	12년	13년
예산(백만원)	8,035	7,602	8,922	11,291

- ✓ 중국 경제는 2013년에 8%대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항공사 항공료 인상과 원화가치 상승 등 부정적인 요인 내재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 세계 경제 저성장에 따른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내국인 관광객 감소 가능성 내재

* 국내 관광지출 전망 CSI

	10년				11년				12년				13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국내관광 지출 CSI	105	106	115	96	108	118	120	105	111	114	116	109	102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내국인 관광객 중심으로 증가세 둔화 양상

누계	10.10월	11.10월	12		
			1월	5월	10월
관광객수	15.8%	13.1%	14.1%	9.0%	4.4%

표. 2013년 제주 경제 전망



전년대비 다소 부정적 전망

건설경기

- 건축 허가 및 착공 면적, 건설수주액 모두 증가한 가운데, 증가세 둔화

	10.10월	11.10월	12.10월
건축허가면적	6.7%	36.7%	11.1%
건축착공면적	42.5%	21.2%	17.3%
건설수주액	9.6%	11.5%	3.0%
민간	85.5%	90.3%	-5.0%
공공	-12.5%	-37.2%	20.0%

- 민간부문 다소 부정적 전망

✓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미분양주택 급증 등의 영향으로 주거용 건축공사가 줄어듦 것으로 예상, 민간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의 경우 민간부문 감소세 전환

- 공공부문

✓ 자치도의 '13년 SOC 관련 예산 감소

	11년	12년	13년
자치도(억원)	5,037	4,890	4,081
수송및교통	3,414	3,416	3,347
국토및지역개발	1,623	1,474	734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
「2012 예산안 보도자료」,
「2013 예산안 보도자료」

- 향후,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 관광개발사업 투자가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

〈제주지역 미분양주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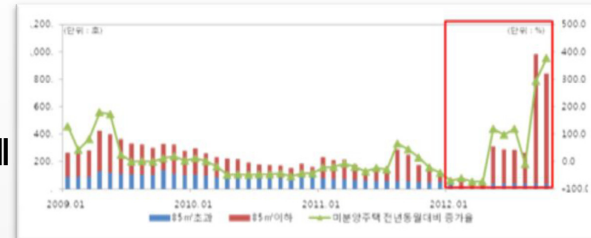


표. 2013년 제주 경제 전망



고용, 물가, 수출

고용 개선세 유지

- 고용 증가세 유지되나, 증가폭 다소 둔화
 - ✓ 농산물가격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폭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농산물가격이 농림어업 취업자수에 6-7개월 선행하면서 유사한 모습으로 변동(한국은행 제주본부)



-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현황

	12년	13년	증감
예산	952억원	958억원	+6억원
취업자수	18,415명	18,742명	+327명

물가 상승세 안정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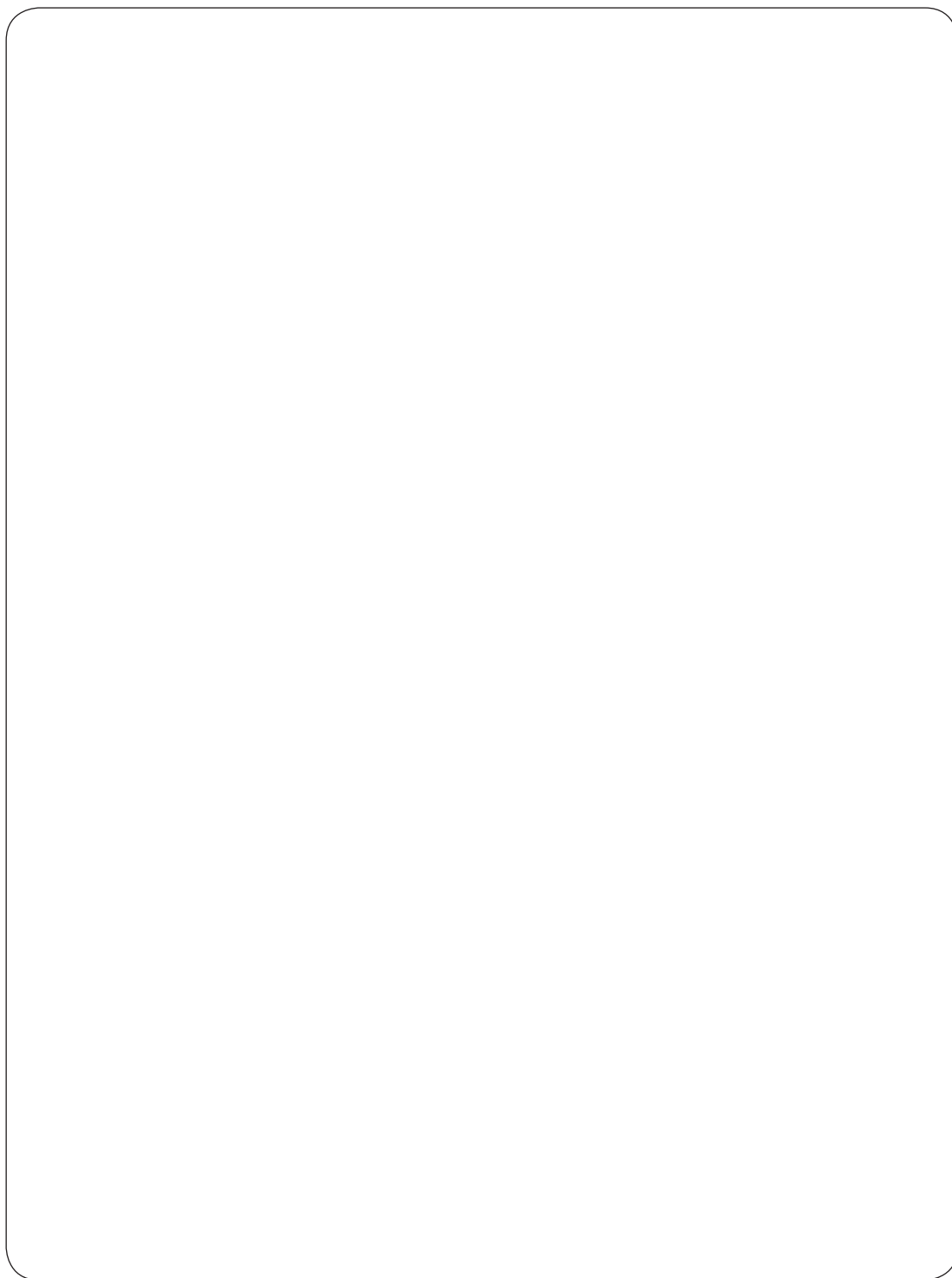
- 물가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오름폭은 크지 않을 전망
 - ✓ [수요]저성장 기조 지속으로 실물 수요압력 완화 지속 전망
 - ✓ [공급]국제유가의 불안정성(투기거래, 중동 리스크 등) 상존, 공공요금(상·하수도 요금, 택시요금 등) 인상 등 불안요인 내재
 -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수축산물 및 공공요금 물가 부담 여전
 - 택시요금 인상안 가시화 : 2,200원→3,000원 내외
 - 상하수도요금 : 13.5월부터 적용, 평균 9.5%, 15% 인상

일본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 둔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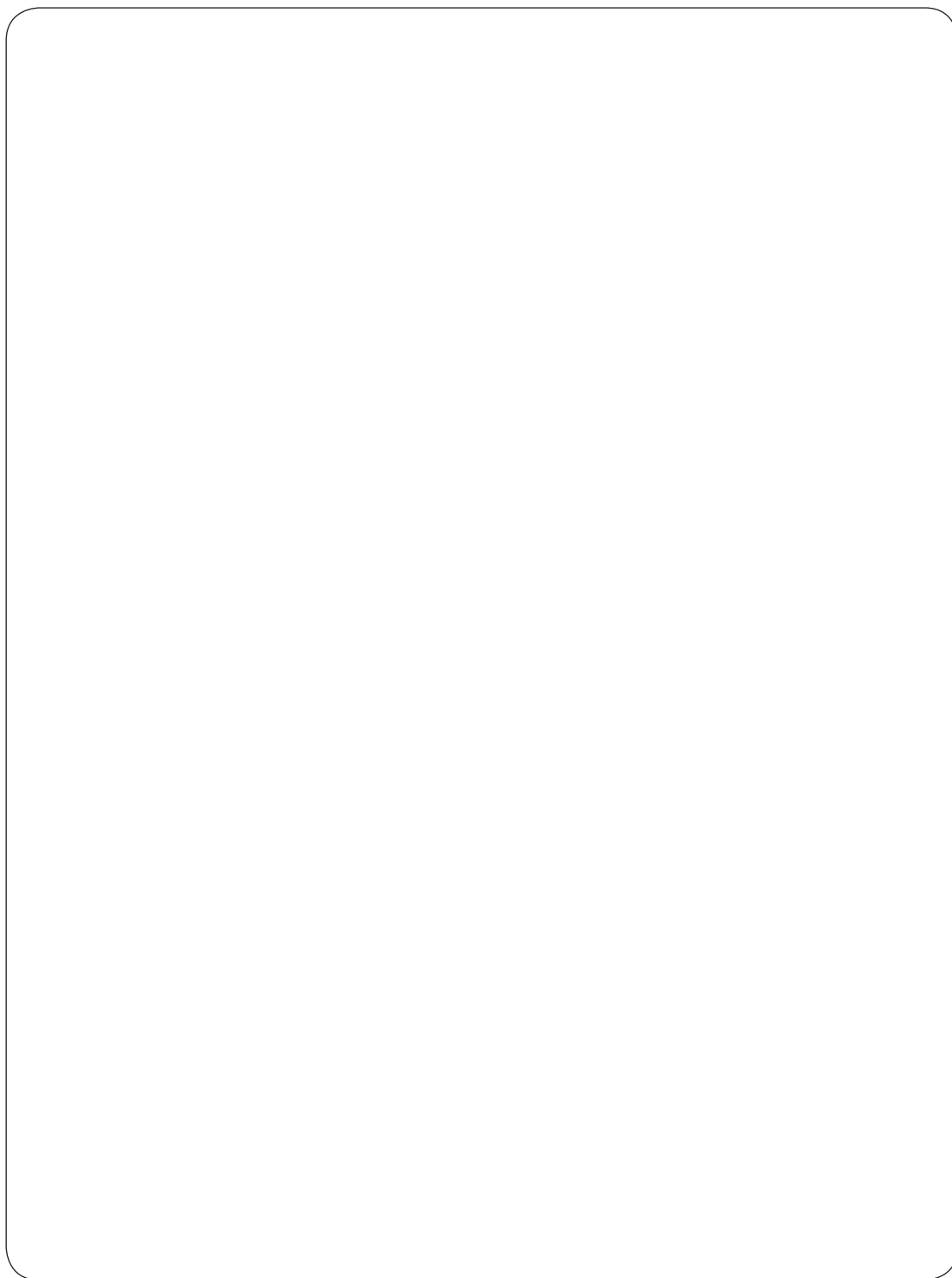
- 제주지역의 수출 비중이 큰 일본 중심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
 - ✓ 수출 비중이 큰 일본경제는 대지진 복구 재건사업 등이 종료되면서 13년에는 성장세(12년 2.2%→13년 1.2%, IMF 전망치)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단, 해외수입수요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세계교역 신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민선 5기 수출 1조원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일본 이외의 수출국 다변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

Thank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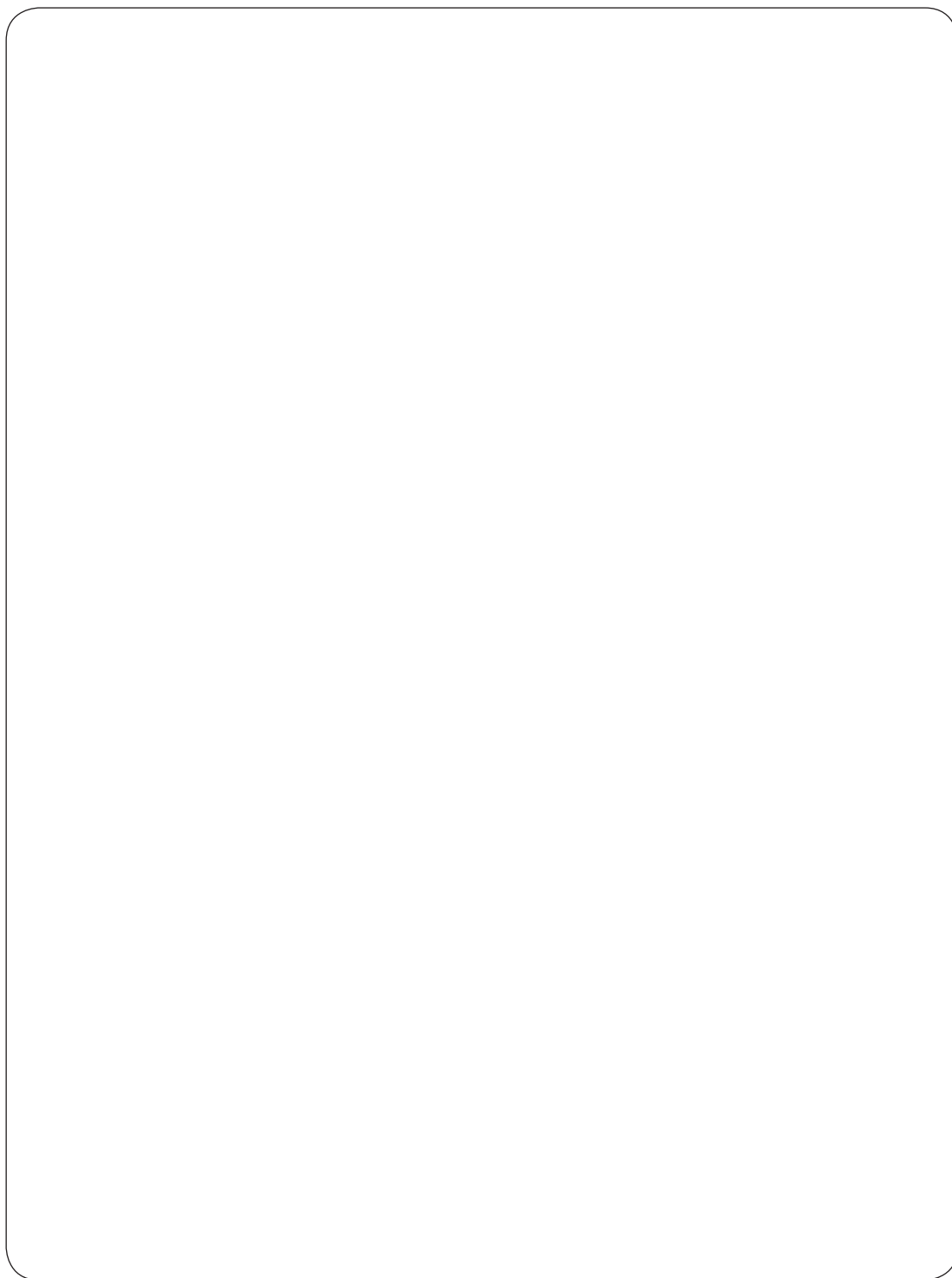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a memo or notes. The box is white with a thin black border and occupies the majority of the page area below the 'MEMO' header.

MEMO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a memo or notes. The box is white with a thin black border and occupies the majority of the page area below the 'MEMO' header.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a memo or notes. The box is white with a thin black border and occupies the central portion of the page.